

10년만에 인혁당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이었다. 혐의사실도 10년 전의 것과 거의 똑같았다. 현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학생대모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학생들의 배후 조종자가 이번엔 인혁당뿐만 아니라 재야 각계가 거의 망라 되다시피 광범위했다는 점이 달랐다. 전 대통령 윤보선씨를 비롯하여 김찬국 교수, 박형규 목사, 지학순 주교, 김지하 시인 등도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자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를 포함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1천 24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서 재판에 회부된 인혁당 관련자는 서도원(52.무직), 도예종(50.삼학건설 회장), 하재완(43.무직), 이수병(37.삼락일어학원장사), 김용원(39.경기여고교사), 우홍선(45.한국골프스탬프사 상무), 송상진(46.양봉업), 여정남(30.무직), 김한덕(블록제조업), 유진곤(대산목재사장), 나경일(노동), 강창덕(무직), 김종대(일어학원원장), 전창일(극동건설 외공부장), 황현승(광신상업교사), 이창복(무직), 조만호(학교도서보급), 정만진(목욕업), 이재형(가전사), 임구호(고려학원강사) 등 23명이었다. 당시 황산덕 법무부장관이 밝힌 인혁당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복귀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의 조직과 활동상황은 1964년 6.3사태 배후조종자로 인혁당관련자들이 검거됨으로써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김상한과 재정책 김배영이 1962년 5월, 월북하고 없었기 때문에 검거된 자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설을 유포, 법정투쟁을 통해 극히 경미한 형을 받았다.

그뒤 1967년 김배영이 인혁당 재건 지령을 받고 다시 남파되었다가 검거되어 인혁당의 진상이 뒤늦게나마 입증되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인혁당은 그뒤 지하로 잠복했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희파동, 개헌청원서명 등이 일어나자 제 2의 4.19로 사회혼란을 조장,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

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수단, 인혁당재건을 완료하고 학생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6월 15일부터 시작, 비상보통 군법회의, 비상고등 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인혁당 관계에 관한한, 피고인들의 형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특히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피고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형에 변함이 없었다.

고문설을 둘러싼 공방전

인혁당 사건을 둘러싸고 또다시 고문에 의한 조작설이 부분하게 나돌았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가족들에 의해 고문설이 알려졌다. 다만 긴급조치하의 통제된 언론풍토와 대공관계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경계와 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는 소문이 전달되지 못했다.

맨처음 고문과 조작설을 대담하게 터뜨리면서 항의하고 나선 사람은 외국의 목사와 신부들이었다. 「조지 오글」목사와 「제임스 시노트」신부 같은 외국 종교인들이 기도회나 반체제 집회 같은 곳에서 인혁당을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혁당에 대한 고문설을 극적으로 전한 사람은 시인 김지하였다. 그 자신 민청학련 사건 배후조종자로 재판에 회부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씨는 「동아일보」 2월 16일자에 실린 옥중수기 「고행 - 1974」에서 서대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인혁당관련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인혁당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전했다. 김씨는 이 글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되었다.

그 무렵부터 인혁당사건의 고문조작설은 재야세력, 종교계에서 파다하게 떠돌아 다녔다. 민주회복 국민회의 같은 재야단체는 「김일성 지령에 의해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은 공소사실에도 없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개재판과 사건진상 및 고문사태 진상을 국민 합동으로 공동조사하자고 제의했다. 기도회에

서 피고인 가족들은 여러가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이 분분한 의혹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혁당이 복귀의 지령을 받은 지하당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에서 일보도 후퇴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혁당관련자들이 발뺌을 위해 고문설등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의 강경자세

정부측의 이같은 강경자세 속에서 대법원은 4월 8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에 대해 원심대로의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인혁당 관련 피고인들은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례적인 사실은 대법원판결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이들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군법회의의 법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형집행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내려진지 5일 이내에 형을 집행토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확정판결 바로 다음날 사형을 집행한 케이스는 극히 드문일이었다. 이 때문에 재심이나 탄원을 시도해 볼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시체를 유족들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실랑이도 의혹의 소지를 남겼다.

다음은 75년 4월 9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8명중 우홍선 열사의 부인이 사건 12년이 지난후에 쓴 호소문이다.

<“세칭 인혁당사건 관계자들을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편들은 가족들 얼굴 한번 못보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아침이슬처럼 쓰러져갔습니다. 그후 많은 사람들이 그 듣기도 어마어마한 죄명들에 묶여 감옥에 끌려가고 또 풀려나고 사면되고 복권되고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법의 유희를, 변화무쌍한 이 세태를, 우리 유족들은 수없이 거듭 찢긴 가슴을 아파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피눈물에 얼룩진 가슴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29 선언 이후 또

많은 2,335명이란 수치의 내란음모에서 부터 별의별 사건의 주인공들이 사면복권되는 이 마당에서도 유독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 온천하가 모자라면 전세계가 다 알고있는 너무 억울하게 희생된, 너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된 정치적 재물임을, 더욱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더 잘 알고 있을 이 사건을 사면, 복권, 보상에 제의하고 어떻게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슨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화가 실현될 가망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을 이대로 묶어 사자해서 발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어느 누가 민주화를 선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되었든들 무슨 민주화 정치를 할 것입니까.

1977년 당시 통일당에서 발간한 「민족의 행진」이란 책자에 실린 그 당시 탄압받고 있는 양심인들 명단에서 인혁당사건에 묶인 인사중에서도 유독 죽은 분들 8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 양일동 당수(지금은 고인)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했느냐고 울부짖으며 항의 했을 때 잊어 버리고 누락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한 웃지 못할 웃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사면, 복권, 보상에라도 잊어버리고 누락된 것은 아닌지요? 복권, 사면, 보상을 결정짓는 여러 형태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칭 인혁당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르는 것인지요? 박정희가 자신의 실책 중에서 가장 큰 실책이 8명을 사형시킨 일이라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전 윤보선 대통령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현정권이 유신정권의 연장이 분명 아니고 전정 민주화를 향한 참신한 정권으로 변신을 하였다면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 죽자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만약 우리들 사면, 복권, 보상을 수 없다면 유신정권과 같음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법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죽여 가족들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저는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온 박정희사진을 그가 죽을 때까지 약 5년간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빨곤 하였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푸른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천벌을 받으라!”하고 외쳤습니다. 한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번씩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무심치 않았습니니다. 박정희는 머리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여 신문에 난 머리를 꼭꼭 썬었기 때문이라고 꼭 믿고 싶습니다. 박정희가 죽기 전에는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 같지가 않았습니니다. 저희 남편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당했다 해도 내가 누명을 벗길 수 없어 죽었다면 억울해도 모든 현실을 받아들 수밖에 없으나, 남편의 무죄를 다 밝히고 조작한 정보당국에서도 할말이 없었는데 사람은 죽여버리다니, 이게 어디 법치국가며 사람사는 세상이라! 그래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수에게 인혁당이 조작임을 폭로하면서 "나를 못믿겠으면 파출소나 경찰서로 나를 고발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한 이 말을 당신 아닌 10명에게 이야기하고 그들 10명보고 또 다른 사람 각각 10명에게 이야기하자"고 울부짖으며 거리를 누볐습니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를 경찰서나 파출소앞에 버리지 않았습니니다. 하나같이 집앞까지 위로하여 태워다 주었습니니다. 이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박정희가 죽은 후에는 이젠 "내 원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하고 억지로 생각하고 매주 산소에 가서 울부짖던 일도 그만 두고 언젠가는 민주화가 되면 내 억울하게 죽은 남편도 사면, 복권, 보상을 몇몇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온천하가 민주화물결이고, 죄없는 양민을 8명이나 재심청구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웃나라들에게 야만인이라는 평을 들어가며 새벽에 학살한 원흉 박정희도 제명에 못죽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하에게 죽고 없는 이 마당에서도 온천하가 다 아는 조작된 인혁당사건을 모른체 외면 한다면 이는 거짓 민주화 그리고 유신정권의 연장임을 인정할 소치임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유신정권의 연장이 아니고 민주화를 선언하고 외치는 정권 내지 정당들이라면 하루 속히 세정 인혁당사건 관계인사들을 사면, 복권, 보상 하십시오.

1987. 8 세정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우홍선의 처 강순희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당한 애국혁명열사

이 재 문 (당시 47세)



1934년 경북 의성 출생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971년 민주수호 경북대구협회 선전부장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으로 구속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
1981년 10월 22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옥사

◎동지의 삶과 죽음

4·19 당시 민족일보의 기자로 분단과 반공에 맞서 언론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때 통일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였고, 64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고, 그후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발표되면서 검거를 피해 고난의 수배생활에 들어섰고, 76년 2월 29일 신항식, 김병권 동지등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77년 1월 18일 한국민주투쟁국민연맹을 남민전 산하에 조직하였다. 79년 10월 남민전 사건으로 검거된 후 80년 광주학살에 항의, 무기한 단식투쟁중 지병인 신경성 위경련 증세가 악화되어 긴급 조치가 요구되었으나, 비전향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당국에 의해 81년 10월 22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운명하였다.

◎동지를 생각하며

1960년 4월혁명 당시, 민족양심의 대변자 역할을 하던 민족일보 정치부기자로 활약하시면서 민족의 자주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심으로써 분단이데올로기와 반공일변도의 언론들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로 민족일보가 폐간된 이후, 영남일보에 잠시 근무하다가 대구매일신문 서울지사 정치부 기자로 활약하게 된다. 이기간 역시 많은 뜻있는 동지들과 군사정부에 반대하고 민주회복과 민족통일애의 의기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1964년 7월, 이른바 1차 인혁당사건으로 검거된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중앙상무위원회 조직부책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971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반대하여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경북지부 운영위원 및 대변인으로 활약하셨으며 유신독재 체제에 맞서 조직적, 전국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동지들과 긴밀히 협의하셨다. 이 협의가 진척되어 가던 중에 제2차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면서 고난의 수배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협의가 진척되어 가던 중에 제2차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면서 고난의 수배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동지는 피신생활 중에 자신의 몸보다도 아끼던 8동지들이 박정희 군사파쇼에 의해 무참히 처형당하는 비애를 맞보셨다. 잡히기만 하면 즉각 처형당할 운명의 칼날위에서도 동지의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및 민중해방애의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다. 인혁당동지들에 대한 학살, 긴급조치9호 및 사회안전법 발표로 이어지는 극악한 유신독재 치하에서 살얼음 같은 경찰 수배망을 헤치며, 1976년 동지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피선되었고 미일을 위시로 한 국제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체제와 그 앞잡이 유신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전계급계층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조직을 결성하셨다.

또한 1977년 한국민주투쟁국민연맹을 남민전 산하에 조직하여 청년학생 및 노동자, 농민, 소시민, 지식인 등을 광범위하게 규합, 그 조직을 강화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그 조직의 역할을 밝혀나갔다. 유신체제의 살인적 폭압성을 폭넓게 선전하여, 박정희 군사독재체제를 국내외적으로 고립화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또 국내독점재벌 및 악질 추종자들에게 응징적 선전투쟁을 강화하여 이들의 횡포에 쫓겨갈 것을 막는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1979년 10월 남민전 사건으로 검거, 1980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형이 언도될 때까지 끊임없이 민족해방운동의 정당성과 폭압적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항거권을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항하여 기층민중의 자기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법정투쟁을 전개하셨다. 과소당국의 살인적 고문과 범죄적 억압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에도 80년 5월 광주민중예 대한 참혹한 학살소식을 접하고는 격분하여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셨다. 이로 인해 동지의 지병이었던 신경성 위경련증세가 악화되면서 유문협착증세가 나타났다. 외부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간악한 과소당국은 치료를 해주는 조건으로 전향서를 요구하면서 동지의 시급한 치료를 가로막아 연속되는 통증에 시달리시다가 1981년 10월 22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옥사하셨다.

신 향 식 (당시 4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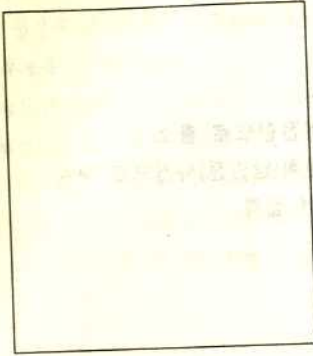
- 1934년 전남 고흥 출생
- 1958년 서울대 철학과 입학
- 1968년 7월 통일 혁명당 사건으로 투옥
- 1972년 3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비전향으로 출소
- 1979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사건으로 구속
- 1982년 10월 8일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사형 집행

◎동지의 삶과 죽음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통혁당 서울 준비위에 참여하면서 학사주점을 운영, 68년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 3년 6개월동안 복역을 하면서도 끝내 전향을 거부, 75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사회안전법을 제정하여 발표시키자 비전향으로 출소했던 상태라서 피검을 피해 지하로 잠적, 76년 2월29일 이재문씨 등과 함께 남민전준비위를 결성하여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79년 10월 검거될 때까지 미일 제국주의와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였다. 검거 후 법정투쟁을 계속하였으나,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 82년 10월8일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사형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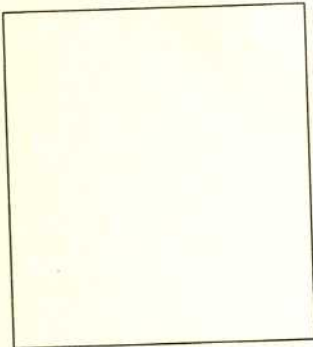
양재영 (당시 62세)



- 1929년 경남 창원 출생
- 1931년 남면 공립보통학교 6년 졸업
- 1937년 도시로 진출 목공예 종사
- 1945년 노동조합 활동
- 1949년 부산형무소 2년형 선고
- 1951년 만기출소
- 1951년 마산형무소 투옥
- 1955년 출감
- 1969년 부산지청에서 7년선고
- 1976년 만기출소와 동시에 감호소 생활
- 1988년 보안 감호소 출소
- 1991년 운명



김광길 (당시 68세)



- 1923년 3월 26일 광주 북구 임동에서 출생
- 1931년 광주 송일보통학교 입학
- 1941년 광주우체국에 입사
- 1945년 조선공산당에 입당
- 1950년 화순군당 위원장. 빨치산 투쟁
- 1951년 12월 30일 화순 말봉산에서 체포
- 1952년 4월 3일 사형선고 후 20년형. 대전교도소에 수감
-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으로 17년 9개월로 감형
- 1969년 9월 25일 출옥
- 1976년 9월 25일 사회안전법으로 청주보안감호소에 재수감
- 1988년 12월 23일
비전향으로 출옥.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산골에서 혼자 생활
- 1991년 4월 28일 교도소 생활중 얻은 간암으로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산골에서 운명

박판수 (당시 74세)



- 1918년 9월 10일 경남 진양군 진성면 중촌리 출생
- 1934년 사봉초등학교 졸업
- 1934년 진주농업학교 입학
- 1937년 진주농업학교 3학년때 반일 학생운동 조직의 진동 총책임자로 활동하다 퇴학
- 1938년 일본 동지사대학 재학중 반일운동으로 퇴학, 구속
- 1939년 동경 일본대 재학중 반일운동으로 퇴학
- 1944년 일본학도병 강제징집을 반대하여 덕유산 입산하여 반일투쟁 준비중 해방을 맞음
-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 진양군 치안책임
- 1946년 함안 서하국교 교편 잡음
- 1947년 남로당 함양군 군당부책으로 지하활동하다 지리산에 입산하여 야산대투쟁을 전개함
- 1948년 여순사건후 김지회 여순 책임자와 합류하여 투쟁함
- 1950년 6월 25일 조국전쟁시 진양군당 책임, 후퇴시 지리산에 입산하여 유격투쟁 전개
- 1951년 유격투쟁하다 진주시 당책 등 경남지구 수개군당 (함양, 산청, 진양, 함천)의 지구당책 역임
- 1952년 미군의 세균전으로 장질부사에 감염되어 심하게 앓음
- 1953년 2월 교전 중 체포됨
- 1956년 15년형 선고받음
- 1957년 전향제도를 거부하고 비전향자로 정치적 신념과 지조를 고수함
- 1960년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신 가운데
4.19 이후 정세변화속에 병보석으로 출소한 후 은신생활을 함
- 1972년 지하조직사건으로 피검되어 15년 구형을 받았으나 7.4성명으로 4년 선고를 받음. 그러나 정세가 다시 악화되어 과거의 형집행 정지 형량이 가산되어 장기투옥됨
- 1986년 3월 총합 24년의 옥고를 마치시고 만기출소 함
- 1992년 1월 18일 밤 11시 30분에 지병인 기관지 천식증세의 악화로 운명

◎동지를 생각하며

박판수 동지는 진주농업학교 3학년때 반일지하조직의 책임자로 항일운동하였고 38년 일본 동지사대 재학중 반일운동으로 퇴학당하고 구속되었다. 45년 해방과 동시에 건준위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지리산에

입산하여 유격투쟁을 하였다. 52년도에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조직사건에 연루되어 5년형을 추가 받고 복역하였다. 1960년에 병보석 출소하였으나 72년 지하조직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며 총 24년의 징역을 살았다. 이후 조국의 민족민주운동과 통일운동에 전념하던 중 92년 1월 18일 지병으로 운명하였다.



권양섭 (당시 80세)

- 1917년 경북 봉화군 출생
- 1943년 종형과 만주로 가서 종형의 항일 운동을 도움
-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봉화 인민위원회 활동. 남로당 대구지역 대의원으로 선출
- 1948년 대구역에서 체포. 4년형 선고
- 1952년 석방
- 1972년 경북지역 통혁당 사건으로 검거. 부인과 3명의 아들, 여동생, 제수씨까지 체포
- 1993년 3월6일 22년만에 형집행정지로 석방
- 1997년 3월18일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직장암으로 투병중 운명

◎동지를 생각하며

55살이던 1972년 2월 13일 선달 그믐날이었다. 설날 차례지낼 음식과 떡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는 아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우리를 연행하기 위해 서울에서 비행기가 두 대 왔는데 한 대에는 나와 큰아들 낙기가 타고 또 한 대에는 일본에서 유학했던 이학동이 탔다. 어린시절 비행기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수감에 채여서 비로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김포에 내려 '안가'에서 취조를 받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줄줄이 끌려왔다. 그때 셋째 문기는 중학생이었고 막내 춘기는 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 문기를 취조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니 내보냈는데, 이때 문기와 춘기는 부산과 천안의 고아원으로 흩어졌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경상도 통혁당 사건, 일명 '유위화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관을 받았는데, 나는 일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뒤 2심에서 무기로 감형되었고 아내는 일심에서 5년, 이심에서 3년6개월로 감형돼 만기출소했다. 25살이던 큰아들 낙기는 무기형에서 10년으로 감형되었고 18살이던 둘째 재기는 소년수로 복역하다 이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형이 확정된 뒤 나는 아내, 큰아들과 함께 73년 3월 경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어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줄곧 독방에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 건너 한방에 한

사람씩 감혀 있었으므로 통방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때로는 고문을 위해 3사람이 들어가는 감방에 5명을 몰아넣어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기도 했다.

그 뒤 광주형무소를 거쳐 사촌형이 마지막 숨을 거둔 대구형무소로 이감해 10여년 동안 있다 다시 대전형무소로 옮겨 93년 3월 석방되어 21년 동안 감혀 있었다.

대구형무소에 있을때는 전향 고문이 심해 참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동지가 있었다. 옥방 벽에 그가 써놓은 유서를 간수들이 지워버려 끝내 듣지 못한 그의 유언이 지금도 산울림처럼 웅웅거린다. 단식을 하다 죽음을 맞은 동지들 역시 내 가슴 속에 묻혀있다. 고문과 이에 맞선 항거는 계속되었다. 나는 그리 심하게 매를 맞지는 않았다. 몽둥이로 때릴라치면 "형님과 동생이 이렇게 죽고 아내와 아들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전향을 하겠느냐"라고 하면 몇차례 더 때리다 그냥 풀어주곤 했다.

나는 21년 동안 대부분 앉아서 읽을 책이나 있으면 보며 조용히 지냈다. 동지들에게 빌리거나 교도소에서 대출해 대략 300여권의 책을 읽은 것 같다. 대전 형무소에 온 뒤 전향을 유도하기 위해 어께로 당기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가슴이 나오는 이불이 배급돼 누워있으면 이불이 부딪칠 만큼 오지게 떨었다.

진태운 (당시 77세)

1920년 2월 29일 함경남도 점평군 출생
 1945년 해방을 맞아 조국건설사업에 헌신하며 민청활동을 하심
 1962년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에 함께 하심.
 그뒤 남녘에 오셨다가 체포됨
 1963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형 확정,
 26년간 옥고 치름
 1988년 12월 21일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 조치로 출소
 1997년 4월 2일 옥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폐혈증으로 운명

◎동지를 생각하며

전세계 땅덩이를 준대도 바꾸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양만아 보아라
 너를 떠난 지도 어언 34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아버지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을줄 안다. 그
 런 너와 너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로 찢어지는 것 같구나. 그런데도 참고 견디어 보아라. 나
 도 산 설고 물 서른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겨저 눈물만 나

더니 지금은 그런대로 살만하구나. 안심하여라
 할말은 많으나 다음기회를 학수고대하면서 끝으로
 너한테 부탁한다. 너를 키워주지 못한 이 아버지를 용서하
 고 너를 낳아서 키워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여라.
 효도란 항상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
 다. 그리고 인민한테서 항상 어진 사람이 되어라. 이만 줄
 일까.

분단의 희생자, 장기수들의 죽음

장기수는 조국의 분단 이후 남한 사회의 최고의 가
 치로 되어 버린 극단적인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의해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7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거나 복역 후에도 보안관찰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
 들이다.

장기수는 다음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의 좌
 익활동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부류이다. 소위
 '빨치산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은 당시에 이승만
 정권에 의해 처형되거나 옥사하였고, 무기형을 받은 경우는
 4·19직후 장면정권에 의해 20년형으로 감형 조치되어 60
 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대부분 석방되었다가 75년 사회
 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됨으로서 석방된 경우들이다.

둘째, '남파공작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종전
 이후부터 70년대 초까지 북에서 남파된 '정치공작원'들이
 다. 72년의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는 북에서 남파되는 간첩
 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들은 '간첩'죄를 적용 받아서 감형
 조치에서 제외되었고, 현재도 비전향 장기수로 대전교도소
 에 '초장기수'로 복역하고 있으나, 북에서 내려온 것을 제외
 하고는 앞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셋째, '조작간첩'의 경우인데, 북한과 직간접으로 연
 관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가족중 월북 및 행불된 경
 우, 남북어부, 재일교포등) 등을 정권의 위기가 도래할 때
 마다 정권안보용으로 조작된 경우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초헌법적인 권위와 '반공' 최상의 분위기의 경직된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사기관이 대부분 고문으로 조작한 것
 이다.

넷째는, 남한 내의 민주적 변혁을 위해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장기형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체포된 직후부터 무지막지한 고문에 시달

려야 했으며, 감옥에 가셔도 항상적인 폭력에 시달
 려야 했다. 특히나 지난 72년 이후 청와대의 지시로 비전
 향 장기수 전원에 대한 강제 전향공작이 시작되었고, 전향
 작의 유형은 고문에서부터 폭행, 징벌방 수감등 모든 악질
 적인 방법이 총동원되었다. 심지어는 약과 의료행위를 거부
 하며 죽어가게 만드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횡
 포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 이들 장기
 수들이다.

전쟁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이런 악독한 고문 폭력의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런 잔인무도한 행위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행되어
 은폐가 용이하고 이런 사실을 안 가족들조차도 함부로 입
 을 열지 못했던 살벌한 사회 분위기 탓이었다. 외세에 의해
 조국이 분단된 현실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나름의
 투쟁 과정에서 검거된 이후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지키다
 희생된 이들에 대해 새로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
 해 여기에 특별히 이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장기수로 복역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장기수 가족협의회가 발간한 자료집 「분단의 철창
 을 열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에 수록된 명단과
 출소 후 사망한 장기수들의 약력을 신는 의미는 조국통일
 투쟁에서 희생된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 하
 는 작은 바람에서이다.

- 옥중사망자 -

(숫자는 사망 연도이고, 지명은 교도소이며, 감호소는 청주감호소를 지칭함.)

河野清: 75	(일본인) 감호소	손순영: 79	대구
강동창: 86	대전	송순희: 79	감호소
고봉을: 72	대구	신창길: 83	대구
공인두: 88	감호소	신춘복: 75.11.	광주
공재용: 76	감호소	안준호: 77	감호소
권오금: 70.2.	전주	윤석만: 69.2.	전주
권창수: ?	대전	윤종하: 74	대구
권흥직: ?	감호소	이동근: 74	광주
기세일: 75.4.26.	대구	이상을: 89	감호소
김경익: 77	감호소	이선우: 87	광주
김규창: 80	감호소	이양섭: 69	광주
김규호: 76	광주	이연송: 72	대구
김대석: 71	대구	이영호: 73	광주
김승윤: 80	대전	이용운: 85	대전
김영호: 73	대구	이훈동: 78	감호소
김용선: 80	감호소	임창규: 79	광주
김용철: 76	감호소	정순직: ?	광주
김태선: 73.10.	전주	정영훈: 76.6.	대구
김태원: 74	대전	조영순: 89.1.	대전
김흥직: 77	감호소	조인국: 73.2.	전주
노천도: 80	대구	최재필: 87	대전
문갑수: 87	감호소	최점수: 81	감호소
박윤영: 74	대전	최종천: 69	대구
박재복: 65	대전	최주백: 87	대전
박정래: 78	대구	최한우: 69.8.	대구
박창술: 88.8.	대전	탁해섭: 78.10.	전주
배학수: 74	대전	하상혁: 69	대구
백갑기: 77	감호소	한태갑: 72	대구
변치수: ?	광주	한현수: 72	대전
변형만: 80	감호소	현명원: 74	광주
손순남: 69	대구	황대연: 69	대구
		황필구: 85	대전

살아서 만나리라 부록

열사들의 주장

조국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321분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가 산화하셨습니다. 이 수치는 유가협과 연대회의에 집계된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산화하셨을 것으로 짐작 됩니다. 이 분들은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산화하신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관통하여 산화하셨으며, 이 분들의 주장 또한 특정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열사·희생자들이 산화하실 때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나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열사·희생자들의 죽음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정리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이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수 많은 열사들의 주장을 하나로 모은다면 “자주·민주·통일 조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글에는 열사들이 산화하실 때 주장이 분명한 경우를 실었고 그의 타살된 경우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도 주장의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포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조국통일의 도상에서 옥사하시거나 사형당하신 분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열사들의 경우 한 분이 여러개의 연관된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각각의 항목에 실었기에 이름이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 (노)노동자, (학)학생, (재)재야, (군)군인, (시)시민, (농)농민, (노점)노점상, (철)철거민

■ 민주화운동 ■

- 김상진(학) 75 “유신독재 타도”
- 김의기(학) 80 “광주학살 자행한 유신잔당 몰아내자”
- 김중태(노) 80 “광주학살 자행한 유신잔당 퇴진, 계엄령 해제, 민주인사와 학생들 석방, 노동 3권 보장하라”
- 김태훈(학) 81 “전두환 물러가라, 광주학살 진상규명”
- 홍기일(노) 85 “전두환독재 타도, 광주시민이여 침묵에서 깨어나라, 학원안정법 반대투쟁에 결사적으로 나서자,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제국주의 몰아내자”
- 송광영(학) 85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 강상철(재) 86 “민주화운동 탄압 중지와 5.18규명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직선제 개헌 단행하라, 민주인사 사면 복권하라”
- 이경환(학) 86 “군사독재 타도”
- 이동수(학) 86 “광주항쟁 되살리라,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최저임금제 보장하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 진성일(학) 86 “건국대학교 농성사건 해명, 군부독재타도, 미제국주의 축출”
- 박종철(학) 87 “수배자 보호”

- 표정두(노) 87 “내각제 개헌 반대,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박종철을 살려내라.
광주사태 책임지라”
- 이한열(학) 87 “전두환 독재 타도”
- 황보영국(노)87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 박응수(노) 87 “후보단일화하라”
- 박태영(학) 87 “오 자유화여,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제도교육 철폐하고 민주교육 실시하라”
- 최덕수(학) 88 “광주민중항쟁의 계승과 국정조사권 발동, 광주를 잊지말자,
광주항쟁 비리주범 노태우를 처단하자, 오월항쟁 계승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
- 박래전(학) 88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과소 타도하자, 광주는 살아있다
끝까지 투쟁하자.”
- 조성만(학) 88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광주학살 진상규명 노태우를 처단하자”
- 남태현(학) 89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교대인이여 깨어나라! 군부독재 타도”
- 이재식(노점)89 “대책없는 노점상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
- 심광보(학) 90 “농민이여, 농민의 깃발을! 노동자여, 노동의 횃불을! 전교조여,
참교육의 합성을!”
- 김병구(노) 90 “노태우정권 퇴진”
- 신장호(학) 90 “전대협 사수”
- 강경대(학) 91 “학원자주화 완전 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
- 김영균(학) 91 “노태우정권 타도, 공안통치 분쇄”
- 김기철(재) 91 “폭력살인 만행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 김철수(학) 91 “노태우정권 퇴진”
- 천세용(학) 91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 박승희(학) 91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 윤용하(노) 91 “노태우정권 타도, 노동해방”
- 이정순(시) 91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
- 정상순(노) 91 “노태우 물러가라, 노동자여 투쟁하라”
- 김귀정(학) 91 “노태우정권 퇴진”
- 양용찬(재) 91 “민자당 타도, UR반대와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 이경동(학) 93 “임용고시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김영삼정권 반대”
- 오영권(학) 96 “김영삼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 만세”
- 황혜인(학) 96 “김영삼정권 타도, 노동해방”
- 노수석(학) 96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
- 류재을(학) 97 “미국과 김영삼 정권의 재집권 분쇄”
- 김준배(학) 97 “한총련 사수”

■ 정권타도 관련 : 33

☞ 박정희 정권 : 1 ☞ 전두환 정권 : 12 ☞ 노태우 정권 : 16 ☞ 김영삼 정권 : 4
▶ 학생 : 22 ▶ 노동자 : 6 ▶ 재야 : 3 ▶ 시민 : 1 ▶ 노점상 : 1

■ 직선제 개헌, 내각제 개헌 반대 등 관련 : 5

▶ 학생 : 1 ▶ 노동자 : 3 ▶ 재야 : 1

■ 광주항쟁 관련 : 12

▶ 학생 : 7 ▶ 노동자 : 4 ▶ 재야 : 1

■ 양심수 석방 관련 : 4

▶ 학생 : 3 ▶ 노동자 : 1 ▶ 재야 : 1

■ 간략한 분석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열사들이 가장 많이 주장한 것은 정권 타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직선제 개헌, 내각제 반대 등과 연관하여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두 38분의 열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이를 정권별로 구분하여보면 박정희 정권 때가 한 분으로 가장 적은 수요이다. 이 수치는 박정희 정권이 폭압적인 정치를 하지 않았다기 보다 전태일 열사부터 시작된, 분신 항거 투쟁과 같은 치열한 투쟁 방식이 극히 적었고, 당시의 운동 양태가 대중 운동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에 비합법 지하운동의 양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15분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산화하였다. 거의 모든 경우가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한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를 정권타도와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86년도부터 직선제 개헌 주장이 나왔고, 87년 박종철 열사 살해 이후 전개된 국민 투쟁에 이어 직선제로 개헌된 87년도에 후보단일화 등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주장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부터 분신, 투신 등의 투쟁 형태가 일반화 되고 있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대중투쟁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광주민중항쟁을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한 데 대한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정권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요인 18분이 산화하였고 그 중에서 16분이 정권타도의 주장을 하였다. 특히 91년도에 11분이 집중되어 공안통치를 획책하는 과정에서 강경대 열사가 살해된 데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권타도의 주장은 김영삼 정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출범 초기인 93년에 김영삼 정권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여 집권 후반기인 96년도에 세 분이 김영삼 정권 타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 열사들이 산화하신 일년 후인 지금 김영삼 정권 퇴진 요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학생운동의 선도적 투쟁 성격이 확인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 열사가 26분으로 학생운동이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 가장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노동 열사가 8분, 재야 3분, 시민 1분, 노점상 1분으로 뒤를 잇고 있다.

■ 민주노조 건설 ■

- 전태일(노) 70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 김진수(노) 71 “노조 사수”
- 김경숙(노) 79 “민주노조 사수, 위장 폐업 철폐”
- 김종태(노) 80 “광주학살 자행한 유신잔당 퇴진, 계엄령 해제, 민주인사와

- 학생들 석방, 노동 3권 보장하라”
- 박종만(노) 84 “부당해고 철회하라, 내 한 목숨 희생되더라도
더이상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 박영진(노) 86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 변형진(노) 86 “부당해고 철회하라”
- 이동수(학) 86 “광주항쟁 되살리라,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최저임금제 보장하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 김성애(노) 87 “산재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이석규(노) 87 “민주노조 사수”
- 이석구(노) 87 “민주노조 사수”
- 정경식(노) 87 “민주노조 건설”
- 오범근(노) 88 “과업 지지”
- 최윤범(노) 88 “민주노조 사수 부당해고 철회”
- 김장수(노) 88 “민주노조 사수, 부당해고 철회”
- 송철순(노) 88 “민주노조 사수, 위장폐업 철회”
- 배중손(노) 88 “민주노조 건설”
- 이대건(노) 88 “단체협약 위반하며 민주노조 탄압하는 것에 항의”
- 이문철(노) 88 “부당해고 철회”
- 장용훈(노) 88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저지”
- 문용섭(노) 88 “회사의 비리 공개”
- 성완희(노) 88 “해고노동자 복직”
- 김종하(노) 89 “부당징계 철회와 민주노조 건설”
- 강현중(노) 89 “부당징계 철회와 민주노조 건설”
- 김윤기(노) 89 “민주노조 사수, 공장 이전 저지”
- 김중수(노) 89 “무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조 사수”
- 박진석(노) 89 “민주노조 사수하자, 더이상 노동자와 노동자간의 싸움을 유발시키지 말라.”
- 이상남(노) 89 “민주노조 사수”
- 이종대(노) 89 “부당해고 철회”
- 최성조(노) 89 “민주노조 사수”
- 최태욱(노) 90 “부당해고 철회”
- 박성호(노) 90 “민주노조 사수, 공권력 투입 저지”
- 원태조(노) 90 “민주노조 사수, 공권력 투입 저지”
- 이영일(노) 90 “민주노조 탄압 분쇄”
- 심광보(학) 90 “농민이여, 농민의 깃발을! 노동자여, 노동의 횃불을! 전교조여,
참교육의 함성을!”
- 윤용하(노) 91 “노태우정권 타도, 노동해방”
- 이진희(노) 91 “어용노조 타도 민주노조 건설”
- 박장수(노) 91 “3자개입 금지 철회”

- 정상순(노) 91 “노동자여 투쟁하라, 노태우 물러가라”
- 석광수(노) 91 “민주노조 사수, 지도부 연행 항의”
- 김치철(노) 91 “지·도급제 철폐”
- 권미경(노) 91 “노동 통제 강화 저지, 인간다운 삶”
- 조경천(노) 93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 최완용(노) 93 “산재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최성묵(노) 94 “민주노조 건설,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거”
- 박삼훈(노) 95 “억압적 노동통제 반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승리하자”
- 양봉수(노) 95 “노동강도 강화 저지, 나는 3만 조합원을 사랑합니다,
동지들을 믿습니다, 나는 돌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 서전근(노) 95 “노조민주화, 부당전출 반대”
- 조수원(노) 95 “병역특례 해고자 복직시켜라”
- 김시자(노) 96 “어용노조 퇴진 부당징계 철회”
- 황혜인(학) 96 “김영삼정권 타도, 노동해방”

■ 노동관계법 관련 : 5 ■ 부당해고 철회 : 15 ■ 민주노조 건설 : 6
 ■ 민주노조 사수 : 19 ■ 산재없는 세상 : 2 ■ 위장 폐업,공공이전 : 3
 ■ 노동강도 강화 저지 : 3 ■ 노동해방 : 2 ■ 타 계층 : 학생 3
 ■ 두분 이상 산화하신 해
 ▶ 86년 : 3 ▶ 87년 : 4 ▶ 88년 : 10 ▶ 89년 : 8
 ▶ 90년 : 4 ▶ 91년 : 7 ▶ 93년 : 2 ▶ 95년 : 2
 ■ 간략한 분석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분신한 이래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주장을 하신 분이 5분에 이른다. 이는 그동안 노동관계법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하여 민주노조를 강화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내용을 사용자들이 준수하도록 하자 이 법안들을 개악해 버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용노조를 타도하거나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민주노조 건설과 민주노조를 탄압으로부터 지켜내고 강화시키겠다는 주장이 2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자행되는 부당해고에 대한 징계 철회 주장 또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노조와 관련된 주장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많이 조직되고 민주노조 운동이 활성화 되자 정권과 자본에 의한 탄압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면서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관련된 주장이 많은 것으로 보아 노동강도 강화가 신중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민족 교육 ■

- 기 혁(학) 85 “독재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 홍기일(노) 85 “학원안정법 반대투쟁에 결사적으로 나서자, 광주시민이며
침묵에서 깨어나라,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제국주의 몰아내자 ”
- 송광영(학) 85 “학원악법 철폐하고 독재정권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 이동수(학) 86 “어용교수 물러가라,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 박선영(학) 87 “비민주적 학사운영 및 미제국주의 매관세력의 지배를 받는
암담한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여 항의”
- 박태영(학) 87 “제도교육 철폐하고 민주교육 실시하라, 오 자유화여,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 김용갑(학) 90 “사학비리 척결, 학원 자주화”
- 김수경(학) 90 “전교조 관련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반대”
- 심광보(학) 90 “전교조여, 참교육의 함성을! 농민이여, 농민의 깃발을!
노동자여, 노동의 깃발을!”
- 정성목(학) 90 “전교조와 관련하여 교육방법 개선하라”
- 강경대(학) 91 “학원자주화 완전 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
- 김철수(학) 91 “잘못된 교육 거부, 노태우정권 퇴진”
- 이경동(학) 93 “임용고시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김영삼정권 반대”
- 한상용(학) 93 “초등교육 개혁과 고대교육 정상화”
- 장현구(학) 95 “과행적 학원운영 중지”
- 노수석(학) 96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
- 진철원(학) 96 “학원자주화”
- 권희정(학) 96 “등록금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원 자주화투쟁”
- 박동학(학) 96 “사학재단의 부정 비리 척결, 학생자치권 쟁취, 조국통일 완수”

- 교육정책 관련 : 8 ■ 학원안정법 반대 : 2 ■ 어용교수 퇴진 : 1
- 비민주적 학사운영 : 4 ■ 전교조 관련 : 3 ■ 학원자주화 : 5
- 타 계층 : 노동자 1 ■ 고교생 : 4
- 두분 이상 산화하신 해
▶ 85 : 3 ▶ 87 : 2 ▶ 90 : 4 ▶ 91 : 2 ▶ 93 : 2 ▶ 96 : 4

■ 간략한 분석

민족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은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전의 학도호국단 체계를 총학생회 체계로 탈바꿈하여 사학재단의 비민주적인 학사운영, 어용교수 퇴진 등 학원자주화 투쟁을 벌려 나갔고 10분의 열사가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였다. 85년들어 대학가의 집회 및 시위 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학원안정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를 저지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열사들의 주장으로 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주장이 노동 열사로부터 비롯되었다. 노태우 정권 때 전교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4분의 고등학생 열사가 전교조 관련 주장을 한 것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 산화하신 열사의 주장이 교육 정책에 관련된 주장이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장은 역대 정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8분이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였는데, 김영삼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각 학교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벌려 나가던 것을 한층런 차원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바꾸는 투쟁으로 발전시켰다.

■ 반미 자주자주화, 조국 통일 ■

- 황정하(학) 83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저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투쟁”
- 이재호(학) 86 “반전반핵 양키고흠,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 김세진(학) 86 “반전반핵 양키고흠,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 이동수(학) 86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 진성일(학) 86 “미제국주의 축출, 건국대학교 농성사건 해명, 군부독재타도”
- 장재완(학) 87 “민족 해방, 조국 통일”
- 박선영(학) 87 “미제국주의 매관세력의 지배를 받는 암담한 조국의 현실과
비민주적 학사운영 ”
- 조성만(학) 88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양심수 석방하라”
- 최덕수(학) 88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자, 광주민중항쟁의 계승과 국정조사권 발동,
광주를 잊지말자, 광주항쟁 비리주범 노태우를 처단하자,
오월항쟁 계승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 양영진(학) 88 “통일된 조국의 산하에 실하디 실하게 뿌리박은 진달래가 되고파...
인간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통일벽 가로막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물러가라, 미국놈들 몰아내고 사람은 세상 건설하자.”
- 최 동(노) 90 “미제와 적들의 탄압을 고발한다”
- 박승희(학) 91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 손석용(군) 91 “같은 민족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미제의 용병 역할 거부”
- 양용찬(재) 91 “UR반대와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
- 이경동(학) 93 “주한미군 철수와 김영삼정권 반대, 임용고시철폐”
- 오영권(학) 96 “조국통일 만세, 미제축출, 김영삼 타도”
- 박동학(학) 96 “조국통일 완수, 사학재단의 부정 비리 척결, 학생자치권 쟁취”
- 류재울(학) 97 “미국과 김영삼 정권의 재집권 분쇄”

- ▣ 미국축출 : 12 ▣ 미국의 용병 역할 거부 : 4 ▣ 반전반핵 : 2
- ▣ 조국통일 : 5
- ▣ 두분 이상 산화하신 해
 ▶ 86 : 4 ▶ 87 : 2 ▶ 88 : 3 ▶ 91 : 3 ▶ 96 : 2

▣ 간략한 분석

분단된 조국의 현실로 말미암아 조국통일 도상에서 희생된 분들이 102분이나 된다. 이 수치는 그나마 집계된 수치이고 옥중에서 희생되었거나 이후 그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운명하신 분들에 한정된 수치이다. 이 분들까지 포함 하게 되면 조국통일에 대한 주장이 가장 많게 된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미국의 역할을 재평가하면서 반미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러한 토대 위에 조국통일에 대한 주장이 터져나와 온 나라에 통일에 대한 열망을 심어 놓아 조국통일이 몇 해 안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 민중 생존권 ■

- 오한섭(농) 86 “무책임한 영농정책에 분개”
- 김길호(농) 88 “농산물 제값 받기 투쟁”
- 이재식(노점) 89 “대책없는 노점상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
- 이원기(철) 90 “강제 철거 저지”
- 김선호(철) 92 “강제 철거 저지”
- 최정환(노점) 95 “살인적인 노점상 탄압에 항거”
- 이덕인(노점) 95 “노점상 탄압 저지”
- 신연숙(철) 96 “강제 철거 저지”
- 민병일(철) 97 “주택 철거와 노점 철거 저지”
- 박순덕(철) 97 “주거권 쟁취, 강제철거 저지”

▣ 간략한 분석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심화된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의해 농민 열사들의 주장이 활발하였으며, 88년 올림픽을 전후로하여 노점상, 철거민 등 기층민중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 졌다. 이는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어 중산층과 기층 민중을 격리 시켰으며 기층 민중에 대한 탄압이 극대화되었다.

◁표1▷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계층별 분류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연대회의

(1997년 6월 현재 기준)

		노동자	학 생	농 민	빈 민	시 민	재 야	장기수	군 경	합 계	
박 정 회 정 권	1960년대							18		18	
	1970	1								1	
	1971	1						1		2	
	1972							4		4	
	1973						1	4		5	
	1974							6		6	
	1975		1					12		14	
	1976							4		4	
	1977							4		4	
	1978		1					3		4	
1979	1						3		4		
소 계	3	2					2	59		66	
전 두 환 정 권	1980	1	1				1	5		8	
	1981		2					2		4	
	1982	1	1				1	1	1	5	
	1983		1					1	6	8	
	1984	1								1	
	1985	1	2			1		2		6	
	1986	3	8			1	1	2		15	
	1987	12	5				1	4	9	31	
	소 계	19	20			2	4	17	16	78	
	노 태 우 정 권	1988	10	4	1			3	4	3	25
1989		10	3		2			2		17	
1990		8	7		1		2	1	2	21	
1991		11	8		1	2	3	3	4	32	
1992		7	3		1		1	3		15	
소 계		46	25	1	5	2	9	13	9	110	
김 영 삼 정 권		1993	11	2	1			2	3		19
		1994	4	2	2			4	1		13
		1995	4	1		2		1	2		10
		1996	5	6		1			2		14
	1997		2		1			1		3	
소 계	24	13	3	4		7	9		59		
년도미상							4		4		
합 계	92	60	4	9	4	22	102	25	318		

〈표2〉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류

	분신	할복	투신	타살	음독	목매	옥사	의문사	병사	사고사
박정희정권	1960년대						18			
	1970	1								
	1971			1			1			
	1972						4			
	1973						4	1		
	1974						6			
	1975		1				12	1		
	1976						4			
	1977						4			
	1978						3	1		
1979			1			3				
소계	1	1	1	1		59	3			
전두환정권	1980	1		1			5	1		
	1981			1			2		1	
	1982						3	2		
	1983			1			1	6		
	1984	1								
	1985	2			1		2	1		
	1986	8		1		1	1	3	1	
	1987	5			3		2	4	10	1
	소계	17		4	4	1	2	18	23	3
	노태우정권	1988	9		1	1		2	6	3
1989		9			2		2	2		2
1990		6		3	1	1	2	3	3	2
1991		12		1	2			6	6	5
1992								2	13	
소계		36		5	6	1	2	4	19	25
김영삼정권		1993	3							13
1994	1						1	7	4	
1995	5					1	1	3		
1996	6			2				5	1	
1997	1			2				1		
소계	16			4		1		2	29	8
년도미상							4			
합계	70	1	10	15	2	5	85	47	60	26

〈표3〉 계층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류

	노동자	학생	농민	빈민	시민	재야	군경	장기수
분신	37	25		2	2	3	1	
할복		1						
투신	3	6					1	
타살	4	6	1	3	1			
음독		1	1					
목매	1	1		1			1	1
옥사		1				1		83
의문사	9	8		3		5	22	
병사	23	4	1			11		18
사고사	15	7	2			2		

- 분신 중에는 분신 후 투신한 유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옥사에는 전향과정에서 지조를 지키다 살해된 경우가 많이 있고, 감옥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운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의문사는 모두 타살의 범주에 속하나 살해자가 은폐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죽음들 치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없지만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 가장 원통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권에 의해 그 진상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에서 집계한 바로는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48분에 이른다.

1. 의문사의 유형

이 분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으로 안기부, 보안사 등에서 자행한 것이 확실시되는 정치적 타살이 11분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운동을 했다 하여 징집 영장도 없이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는 강제 징집 행위가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끌려가서 보안사에서 사상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요구하는 '녹화사업'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6분이 자살로 위장되어 살해되었다. 공식적인 녹화사업 폐지 이후에도 보안사의 이와 같은 공작 의해서 5분이 또다시 살해되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조합활동과 시위 등으로 공권력과 자본에 의해 13분이 살해되었다. 네 번째 유형은 운동 과정과 특별한 연관을 갖지는 않았지만 불의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로 애국 시민이 2분, 애국 군인이 11분에 달한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전체 의문의 죽음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문의 죽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독재 정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살해자의 철저한 은폐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경우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보다는 자포자기 하였으며 비관 자살, 또는 단순 사고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승만 정권 당시에 자행된 애국인사들에 대한 암살과, 박정희 정권 때 수많은 장기수 선생님들이 고문을 동반한 사상 전향 과정에서 살해되었으나 단순 옥사로 처리된 것들이 다 이에 해당된다.

2. 의문사의 원인

의문의 죽음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첫 켤레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테러리즘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각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이나 안기부법, 그리고 집시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의 사상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섬멸적인 제국주의 양태와 폭압적인 군사 독재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집단에 대해서나 개인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양태는 일제시대 때부터 자행되어 온 치안유지법과 같은 사상 전향 행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에 기인한다. 여기에 해방 이후 미군정이 자행한 고문 기술이 보태졌고 이후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그 형태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것은 공권력 외에도 기업이나 사학재단 등도 마찬가지로 자행하고 있다.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구사대,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노조, 학생회, 철거민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취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는 말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이다.

3. 의문의 죽음이 갖는 지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라 한다. 수많은 열사들이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그 제단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조직 그리고 동지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 억압과 착취의 세상을 해방 세상으로 바꾸려는 시위도중 운명하신 분들과 같이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다.

4. 김영삼 정권에서의 의문의 죽음들

우리는 단순 의문사로 기록될 뻔한 박종철 열사를 기억한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 소리를 내며 죽었다.'며 은폐하려던 것이 물고문 전기 고문에 의한 살해 행위로 드러나자 전 국민이 분노하였고 급기야는 6·10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최루탄에 맞아 운명한 이한열 열사와 4·19 혁명 당시의 김주열 열사, 그리고 쇠파이프에 맞아 살해된 강경대 열사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이와 같이 의문의 죽음들은 정권의 도덕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인을 단순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해 버린다.

소위 문민정부라하는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의 죽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점상 강제 철거에 대응하다가 양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다에서 떠오른 이덕인 열사, 대선 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 투쟁 중에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살해된 노수석 열사, 철거 투쟁 중 경찰에 의해 타살된 민병일 열사, 그리고 경찰의 쇠도리깨까지 동원한 살인적인 폭력 진압 과정에서 살해된 류재을 열사가 바로 그 분들이다. 류재을 열사는 살해된지 60여일 만인 5월 24일 새벽에야 가까스로 장례를 치렀다. 이 것으로 볼 때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의문의 죽음들은 경찰의 폭력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이 학생운동권과 노점상, 철거민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진상 은폐의 수단

법의학에서는 '시신은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명제가 있다. 그 만큼 부검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가 정치적 성격을 띤 의문의 죽음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

전에는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만 갖추고는 서둘러 시신을 화장해 버린 경우가 많았다. 녹화사업에서 희생된 분들과 김용갑, 우종원 열사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리던 것이 이제는 부검을 진실 은폐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박창수, 이철규, 이내창, 이덕인, 노수석 열사까지 모두 다 그렇게 부검이 은폐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부검이 진실 은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으로 70 노파의 살해범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지만 김기설 열사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조작까지도 하였다. 이철규 열사의 경우에는 오염된 도구를

사용하여 부검 결과를 왜곡시키기도 하였다. 국과수에 대한 이러한 불신으로 부검을 국과수 외의 다른 곳에서 하려 하나 거부되고 있고, 부검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부검의를 직접 참여시키려고 하나 이 것도 입회에 그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류재을 열사의 경우 부검을 거부한 것이다. 진상 은폐의 또 다른 수단으로 목격자들을 조작하고 증거 인멸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그 정권에서 자행된 의문의 죽음은 그 정권 하의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불신으로 확대된다.

6. 진상 규명을 위하여

그 동안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 ① 84년 강제 징집 희생자 진상 규명 노력
- ② 88년부터 89년 사이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 규명 요구하며 135일 동안 농성
이후 따라 89년 국회 5공 청문회에서 의문사 문제 거론
- ③ 90년부터 의문사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10만명 서명
- ④ 국회 청원과 시위 - 회기 마감으로 자동 폐기
- ⑤ 이철규 열사 사인 진상 규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
- ⑥ 이내창 열사 사인 진상 규명 노력 (한겨레신문과 안기부와의 법정 투쟁)
- ⑦ 김용갑, 박창수, 이덕인 열사 등 사인 진상 규명 노력
- ⑧ 김상원 동지 유가족의 노력으로 진상 규명
- ⑨ 유가협 의문사지회에서 개별 청원

이 과정에서 진상 규명이 된 경우는 김상원 동지, 한 경우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을 여전히 남겨둔채로 차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그 죽음들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의 죽음을 발생시킨 시대적 배경을 청산하는 길이다.

먼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을 가진 특별 검사제가 채택 되어야 한다.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기에 유가족 측과 인권 단체, 법의학자, 변호사 등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뿐 아니라 옥중 희생자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 전반에 대한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의문의 죽음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집시법은 물론 철폐되어야 하며,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점상, 철거민들을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하는 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내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 당국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살아 남은 자들은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범국민추모(기념)사업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연대회의

1. 투쟁의 정점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있었다.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집계한 바로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분신, 투신, 할복의 방법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되신 분들, 그리고 오랜 운동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 후유증, 옥중 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319분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산화하셨다. 그중 노동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희생자가 92분, 학생운동을 하다 산화하신 열사·희생자로는 60분, 재야 활동을 하다 산화하신 분과 빈민, 농민, 군경, 일반 시민으로는 64분, 그리고 사형 당하시거나 옥중에서 운명하신 분, 출옥하여 운명하신 장기수 선생님이 103분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은 이중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거나 행방 불명된 296분의 열사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분들을 포함하면 606분에 이른다. 또한 1960년대 이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산화하신 분들은 더욱 많다. 이 모두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몇 만을 헤아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젊음을 다 꽃피우지도 못하고 산화하신 절박함은 무엇일까. 그리고 열사와 희생자들이 하나뿐인 고귀한 목숨을 바쳐 가며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분노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를 억압하는 제국주의와 독재 정권, 자본에 항거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 것이다.

2. 추모(기념)사업의 지위와 역할

추모(기념)사업은 항일 독립운동과 자주·민주·통일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가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성취해 온 역사의 발전을 위해, 투쟁의 최 정점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며 의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모(기념)사업을 통해 민족과 민중을 위한 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들을 통해 역사 속에 면면히 살아 숨쉬고 있는 인간의 위대성을 전파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시기의 반민족, 만민주, 반민중, 반통일 세력을 척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선봉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1) 정부 차원의 추모(기념)사업

최근 들어 국가 보훈처에서는 이 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홍보를 하고 간략한 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사회주의 계열에 속해 있었다 하여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미 복권된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친일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미 군정 시기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는 기간동안 산화하신 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친일파의 잔재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요직에 등용되었으며 이후 이승만 극우 반공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득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수 많은 열사·희생자들이 발생하였다. 이는 자칭 문민정부라 일컫는 김영삼 정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로써 역대 정권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노력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선정한 국가 보훈의 대상은 ① 애국지사 ② 전몰, 전상 군경 ③ 순직, 공상 군경 ④ 4·19의거 사망자, 상이자 ⑤ 재일 학도의용군 ⑥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상이자, 순직자 ⑦ 기타 제대군인, 반공포로상이자, 월남귀순용사, 상이자 등이다.

2) 국민적 추모(기념)사업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시한 추모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역대 정권은 그 사업을 시행할 의지나 노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반하여 국민적 노력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좌절되거나 단절되기도 하였지만 면면히 계승되어 왔다.

① 해방 직후인 1945년 조직된 '반일투사 원호위원회'는 항일 투사 발굴 사업과 국가 원호 사업을 연구하였으나 미군정치의 극심한 탄압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사업 내용이 소실되었다.

②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31일 경북지역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피학살자 유족회'는 10월 20일에는 서울에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가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유족회에서는 학살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애국자들의 명예회복을 역사적으로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2개 특별입법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다 5·16 군사쿠데타로 좌절되면서 유족회 성원이 사형과 징역 15년, 10년 등을 선고 받았다.

③ '갑오동학농민전쟁 기념 사업'

④ 4·3 제주민중항쟁 기념사업과 여순 민중항쟁 추모 사업

⑤ 산청, 함양, 거창, 문경, 금정굴 양민 학살 사건 유족회와 대구피학살자 유족회 명예회복 사업

⑥ 4·19 혁명 기념 사업

⑦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 사업

⑧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사업

3) 범국민추모(기념)사업회(범추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을 해 나가는 틀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주·민주·통일 정부가 수립 될 때까지 미루기만 할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의 대의로써 범 국민적인 차원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을 해 나가는 틀이 요구된다.

① 범위

위에서 보듯이 국민적 차원에서 추모 및 기념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이 활발하게 되지 않았으며 국민적 힘이 결집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성과 또한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각기 진행되고 있는 추모 및 기념 사업을 하나로 모아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결집 시켜야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추사는 자주·민주·통일 정부를 수립하는데 기여 한다. 이상으로 볼 때 범국민추모사업회에서 추모 및 기념사업을 해야 할 범위는 다음의 범위에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유가협과 연대회의에 관련된 319분의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 광주민중항쟁에서 산화하신 296위의 열사

▶ 갑오농민전쟁 희생자

▶ 제주 4·3 민중항쟁 희생자

▶ 여순 민중항쟁 희생자

▶ 산청·함양·거창·문경·대구·금정굴 등지의 피학살자

▶ 보도연맹 관련 피학살자

▶ 4·19 혁명 과정에서 산화하신 분들

② 이전의 범추사 건설 시도.

93년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를 준비하며 범추사 준비위를 구성하였다. 당시 준비위원장으로서는 문익환 목사님께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맡아 주셨으며, 집행위원장으로서는 김동완 목사님께서 하셨다. 당시의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당시 추진 진행 일정은 4월 말 제 단체와 민주 인사들에게 제안, 5월 11일 간담회, 5월 14일 1차 발기인대회, 5월 24일 2차 발기인대회, 6월 5일 준비위 결성 등의 진행과정을 거쳤다.

▶ 범위를 유가협과 관련한 민족민주열사·희생자로 한정 지었다.

▶ 조직 결성을 중앙에 한정 지었다.

▶ 추진을 담당할 중추 세력이 부족하였다.(당시 유가협 박래군 사무국장, 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등)

▶ 회의가 성원 미달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유가협의 상황과 맞물려 진척되지 않아 준비위 상태에서 추진이 중단되었다.

▶ 그럼에도 연회비 2만원씩 납입하는 범국민추모위원회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 그 후로도 연대회의에서는 해마다 범추사 건설을 제1의 사업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그에 따른 어떠한 후속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96년 말 4차 총회에서 97년도 사업계획으로 다시 의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③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에서 해야 할 사업 내용

가. 민족민주열사에 관한 법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반사업

▶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기념탑 건립사업

▶ 민족민주열사 묘역조성과 성역화 사업

▶ 법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제반사업

▶ 은폐조작되거나 진상규명이 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발굴 사업

▶ 정치적 살인행위인 의문사 진상규명사업

▶ 4·3, 5·18, 6·10 등 국민 기념일 제정사업

▶ 국정교과서에 수록하는 등의 역사 재평가 사업

▶ 위의 사업을 이루기 위한 기타 제반 사업

나. 장학 사업 등 유가족 지원 사업

다. 선전 홍보사업

라. 대외 연대사업

마. 연구사업

바. 재정사업

연대회의가 걸어온 길

1. 창립목적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연대회의는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산화해가신 전체 열사·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며 보훈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로 92년 3월 15일 출범하였다.

2. 연대회의 현황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된 추모사업회가 60여개 정도 되며 지역별로 연대회의가 설립되었거나 준비중에 있다. 또한 97년 들어 열사추모(기념)사업회 뿐만 아니라 열사관련 단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96년 11월 제4차 정기총회에서는 이창복 상임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공동의장님을 선출하였으며(각 지역별 대표) 명칭을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로 바꾸고 활발하게 사업을 해오고 있다.

연대회의 96. 9~97. 10

☐ 제1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선포 (9월 16 ~ 21)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차원으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단과 해방이후 9월 현재까지 (연대항쟁 관련한 한충련 구속자 포함) 양심수 명단을 한겨레 신문에 전면 광고
- 열사의 거리 선포 및 문화 행사
조성만 거리 (명동 성당 앞 거리)
전태일 거리 (청계3가 ~ 7가)
박영진·김중수 거리 (가리봉 5거리)
- 제7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 추모제 개최

☐ 제2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행사

- '제2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행사를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였고 제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개최함.
- 전국 각지에서 열사의 거리 선포 및 문화제
제2회 전태일 거리 문화제, 제2회 조성만거리 문화제, 박영진·김중수 거리 강연회
김중하·강현중·최용 거리 선포식
제3차 학술회의 개최.

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사업

- '민족민주 열사력' 발간
- 월간 '말'지 신년호 부록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 게재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 실 제작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우표에는 역대 대통령과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윤봉길 의사 등의 애국지사들이 도안으로 채택 되어 있으며, 화폐에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 국민들이 존경할만한 분들이 그려져 있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도 당연히 이 반열에 들어야 하나 현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함. 따라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기념 실은 열사들을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제작.

㉕ 신문, 잡지 등에 광고

- 이달의 열사,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항의, 한총련 출범식 축하, 추모 및 기념 주간, 학술회의, 민족민주 열사력, 민족민주열사 기념 실 등의 광고를 신문, 잡지에 게재.

㉖ 연하장 발송

- 사회 단체, 개인, 양심수 등에게 연하장 1,583 통 발송

㉗ 열사력 헌정

- 모란공원, 5·18 묘역의 각 열사 묘소에 열사력 헌정

㉘ 조직 사업

- 추모사업회 지원 강화
-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광주, 부산 거제, 울산, 대구지역 추모사업회와 유관단체 간담회.
- 수련회 개최
2월과 7월에 각각 유성과 백양사에서 연대회의 수련회 갖음
- 연석회의 개최
추모·기념 단체에 국한하였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사업을 위한 연석회의'를 1월부터 월 1회 개최하여 4차까지 진행.
- 현재까지 연석회의에 참석한 단위 : (총 58개 단위)

[유가협] 박정기 상임의장, 배은심 공동의장, 기세문 감사, 한상근 열사 어머니

[추모·기념사업회]

경동산업 김종하·강현중·최용 추사, 경기대 오원택 추모 주최, 고무노동자 권미경 추모모임, 광주 김철수 추사, 김병곤 기사, 김상진 기사, 단국대 최덕수 추사, 대구공전 박동학 추사, 동우대 김용갑 추사, 명지대 강경대 추사, 박영진 추사, 성신여대 권희정 추사, 숭실대 박래전 기사, 여수수산대 오영권 추모 주체, 연세대 노수석 추모 주체, 이내창 추사, 이문철 추사, 전태일 기사, 제주 양용찬 추사, 조선대 이철규 추사, 전남대 박승희 추사, 지학순주교

들빛회, 한진중공업 박창수 추사, 현대자동차 양봉수 추사 (가나다 순)

[총학생회]

경원대 총학, 고려대 총학, 동국대 총학, 동덕여대 총학, 명지대 총학, 서강대 총학, 서울산업대 총학, 서울대 총학, 숭실대 총학, 성균관대 서울, 울진 총학, 용인대 총학

[전국단위 조직]

과거청산 국민위, 전국건설일용공노조, 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해투, 한총련 광복회(개인자격 참관)

[유관 단체]

김형찬 대책위, 민가협, 민족연회국패 매편, 문예일꾼 동우회, 서울택시협의회, 원진노동자 직업병위원회, 예술공간 숲, 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노동조합]

경동산업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 청계피복 노조, 한일병원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㉙ 홍보 사업

- 매 달 열사회보를 발간하여 13호까지 발간. 현재 1,500부를 발행하여 1,300여부 발송.
- '이달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를 한겨레 신문에 광고로 게재하였으나 4월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중단.
- 각 대학에 열사의 거리 조성 : 3월부터 전국의 각 대학에 열사의 거리를 조성토록하여 사진과 자료를 제공하여 각 대학에서 이를 이용토록 하였음.
- 각 대학 학보사와 방송국에 열사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함.

㉚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

- 3월, 6월, 9월에 걸쳐 학술회의 개최. 학술회의는 지금까지 감상적으로 접근하였던 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대해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이를 통해 구체적 명예회복을 획득 하고자 함.

㉛ 6·10 기념 주간 행사에 참여

-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6·10 기념 주간 행사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를 알리는 사업을 배치.

㉜ 연대사업

-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 과거청산 국민위, 김형찬 대책위, 원진 공대위, 4.3 추진위, 겨레사랑 북녘 돕기 운동본부, 인권문화제 공동 주최 등
- 각 열사 추모제 지원과 연대

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대선 공약화 요구

- 세 차례에 걸친 학술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요구안을 만들어 각 당에 발송하였고 10월 14일 기자회견을 하였다.

㉕ 유가협 부모님들 투쟁 지원

- 사회 지도층 병역문제 비리와 관련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의문의 죽음과 관련한 농성'을 지원함.

㉖ 성명서, 항의 공문 등 발표

- 표정두 열사 추모제 봉쇄 규탄, 정재성, 최도근 동지 분신, 전·노 사면 저지 성명, 모란공원 앞 아파트 건설에 대한 항의 공문 등 발표

㉗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 발족에 대한 준비

- 민족민주열사·희생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지금까지의 정부는 민족민주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없음. 그렇다고하여 열사들에 대한 범국민적인 추모·기념 사업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므로 우선 민족민주 운동세력이 중심이 되어 일반 시민들을 참여 시켜 범국민추모사업회를 시급히 건설해야 할 것이 요구 됨.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주소록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131-106 T. 742-3180 F. 742-3181 모DEM/ 천리안 CHUSA

● 공동의장단 주소록 ●

<상임의장>

이창복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전국연합 921-4092

<공동의장>

권영길 성북구 삼선동 1가 12-1 삼선빌딩4층 민주노총 765-2010

문정현 전북 군산시 오룡동 856-1 오룡동성당 0654-63-7211

박순보 부산시 진구 양정3동 394-3 2/5 전교조 부산지부 051-861-8186

양재덕 영등포구 도림동 184-16 수도라사 2층 한국노동운동협의회 848-4346

진관스님 종로구 화동 138-12 불교인권위원회 734-6401

정진동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48-4 청주도시산업선교회 0431-271-6412

① 수도권 지구 ①

강경대 추모사업회 120-120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 본관 601호 (300-1654)
김승기회장 02)421-2071, F: 424-9063

고재욱·류정하 추모사업회 461-140 성남시 수성구 단대동 19번지 신구전문대 동연내
0342)40-1661

권희정 추모사업회 136-742 성북구 동선동3가 249-1 성신여대 학생회관 211호
구선주 015-957-1815

김귀정 추모사업회 110-745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학생회관 4층
박용진 02)701-9088, F: 760-1381

김기훈 추모모임 홍사단청년아카데미 02)745-8171, F: 747-7686

김두황·유재관 추모사업회 110-160 종로구 공평동 34 고대교우회관 308호
고대민동 송재석 사무국장 02)735-8409, F: 735-8408

김병곤 기념사업회 012-801-4500

김상욱 추모사업회 서대문구 북아현1동 147-4 아현제일교회 시민연합

김상진 기념사업회 135-240 강남구 개포동 656 시영아파트상가 205호
김원봉 02)572-6148, F: 579-8213, 천KMA411

김시자 추모모임 132-033 도봉구 쌍문3동 388-1 한일병원노동조합
한일병원노조 위원장 박인기 02)901-3209 F.901-3482

김영자 추모사업회(준) 137-130 서초구 양재동 305번지 천혜빌딩 403
전여농 02)529-6349, F: 529-6332

김윤기 기념사업회 136-100 성북구 정릉동 861-1 동연 '청문화'
김상빈, 최진호 910-4932

김의기·김상옥·최웅·이윤경 추모사업회 110-273 중구 필동3가 28-15 태광빌딩4층
서강민동내 오세제, 김태호 02)269-8812, F:261-0265

김종하·강현중·최웅 추모사업회 404-715 인천 서구 가좌동570-10 경동산업노동조합
김학철회장 경동노조 02-742-3180, 032-575-7223(팩스겸용)

김중수 추모사업회 153-021 구로구 가리봉1동 106-5
김건우회장 02)862-9909, 861-3511/4

김처칠 추모사업회 121-270 마포구 상암동 403-2
홍성운수 노조 02)376-9188

남태현·박선영 추모사업회 137-070 서초구 서초동 1650 서울교대 학생회관4층
최봉조 02)3475-2570

남현진 추모모임 462-13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82-34 4층 전교조 성남지회]
조홍채 0342)757-7940, 천: SNN

들빛회 100-013 중구 충무로3가 59-12호 3층 (265-7940)

문익현목사 기념사업회 136-031 성북구 동소문1가 42번지 정화빌딩 402호
문호근 02)764-3036, F: 745-5874

박래전 기념사업회 156-031 동작구 상도5동 1-1 숭실대 학생회관 3층
심현중회장, 이종원사무국장 02)820-0970(팩스겸용) 천:PARKKISA

박영진 추모사업회 153-023 금천구 가산동 143-45번지 3층
강문영, 이인휘 02)686-2408, 02)868-3097, 02)806-7039, F: 684-3013

박종철 기념사업회 110-460 종로구 연건동 198-2 현송빌딩 402호
김찬훈 02)576-8621, F573-9374

박현민 추모사업회 숭실대 기독교학생회

서울대 민족민주열사합동 추모사업회 151-019 관악구 신림9동 산56-1
서울대 총학생회 02)880-5224

송광영 추모사업회 461-200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경원대 학생회관내
박경택, 구원본(집) 0342)750-5457, 0342)722-0534

신장호 추모사업회 461-200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5번지
대유공전 0342)720-2178

안경준 추모사업회 133-140 성동구 모진동 93-1 건국대 총학생회 (450-3086) 농대

원태조·박성호 추모사업회 425-130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29-1 우성연립1차 가동
306호 0345)494-4622

유구영 추모사업회 136-041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4층 민주노총 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임성규 02)766-5892/4, F: 766-5895

유재관 추모사업회 403-131 인천시 부평구 십정1동 294-1번지 오뚜기수퍼 2층
한겨레민주노동자회 윤관석 032)423-2468, F: 435-9925

이내창 추모사업회 100-380 중구 목정동 23-11 2층
서원, 박지훈 2726-007, F: 272-4810, 017-272-4810

이문철 추모사업회 152-110 구로구 궁동 192-11
이승수회장, 서용석 02)684-9963, 0342)42-3493, 02)922-3894

이범영기념사업회 130-072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련빌딩 3층 한청협내
윤석영 02)253-0924

이수병 추모사업회 130-050 동대문구 회기동 52번지 회기슈퍼2층
경희민동 02)960-5650, F: 3295-5865

이재식 추모사업회 110-160 종로구 공평동 17-1 해송빌딩 5층 전국노점상연합회내
전국 노점상연합 소순관 회장 02)725-5025, 231-8692, 297-8409

이종대 추모사업회 423-050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1 기아자동차 노동조합내
(이병헌 801-3951/3938, F895-4115)

이한열 추모사업회 121-100 마포구 창천동 3-103 연대민동
이상호 02)516-1544, F: 3445-3152

장준하 추모사업회 110-524 종로구 명륜동4가 133번지
통일문제 연구소 02)762-0017

전태일 기념사업회 110-542 종로구 창신2동 131-106 3층
이형숙 3672-4138 F: 3672-4139, 천:JTI95

조경천·조정식·우종원 추모모임 403-130 인천시 동구 화수동 183번지 일꾼교회 3층
-이형진 032)433-4880

조성만 추모모임 천정연 02)747-2445, 747-2447

천세용 추모사업회 461-200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경원대 총학 0342)752-3220

최응현 추모사업회 133-070 성동구 행당동 산17 한양대 제2학생회관 2층
청년동문회 이유미, 오현진 02)296-9176, F: 290-1871, 364-9576, 0342)757-4936

한상근 추모사업회 449-714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삼117-6 용인대 총학생회내
신대실 012-1102-6972

김두황·유재관추사 110-160 종로구 공평동 34 고대교우회관 308호
'고대민동' (735-8408)

한영현 추모사업회 133-791 성동구 행당동·17 한양대 직녀관 2층 (296-9176,290-1697)

● 광주호남지구 ●

김철수 추모사업회 501-140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 총학생회내
한현우 062)230-6767, 012-630-6767

박승희 추모사업회 503-060 광주시 북구 중흥3동 599-122 전대동창회관
062)527-2777, F:527-5734

박영근 추모사업회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 총학생회
0653-50-5595 F5599 박중대

박태영 추모사업회 534-830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61
목포대 총학생회 정평실 0636)453-7529

오영권 추모사업회 550-749 전남 여수시 국동 195번지 여수수산대 총여학생회
김경수 회장

이경동·한상용 추모사업회 500-090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 학생회관 2층
극박기성 회장, 박종영 사무국장 062)520-4436

이재호 추모모임 이영범 062)571-0889

이철규 추모사업회 501-130 광주시 남구 불노동 17번지 조선대 총동창회내
062)232-5809, F:228-0199

표정두 추모사업회 506-090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 총여학생회 062)940-5880

● 충청지구 ●

오원진·윤재영 추모사업회 대전민청

유병진 추모사업회 339-8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208
고려대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 0415)60-1960/4)

정영삼 추모사업회 전교조 충북지구 도종환회장(집) 0431)52-9541, 0431)271-1264

최덕수 추모사업회 330-180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29번지
단국대 총학생회 전훈진 0417)63-4349, 02)567-7710, F: 568-7719

● 부산경남지구 ●

부산지구 연대회의 614-031 부산시 진구 부전1동 264-11 덕삼빌딩 3층
강수열, 박숙경 051-806-1558/ F051-806-1558/ 모델 천리안 PSK1205

권미경 추모모임 604-072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 550-5 36/1
박숙경 051)806-1558, F,807-3771

김수배 추모사업회 고려화학 노동조합
김대현 사무국장 0522)80-1549, F: 0522)88-8942

김순복·손구용 추모사업회 660-920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987 전농 경남도연맹
강병기 0591)761-7557

박종철 부산추모모임 609-731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389-21
이갑상 051)516-8722

박창수 추모사업회 606-796 부산시 영도구 봉래5가 29번지 영도우체국 사서함 40호
정상철, 강수열 051)416-1297, F: 412-0504, 051)806-1558

서영호·양봉수 추모사업회 681-380 울산시 중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윤성근회장, 이해민 0522)803860, F: 80-7411

이상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구창희 정책실장
0522)30-5096, F: 33-8221

이석규·이상모·박진석·박삼훈 추모사업회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
대우조선 노동조합 양현모 기획실장 0558)681-7944, F: 682-2000

이영일·임종호 추모사업회 통일중공업 노동조합
조호영 부위원장 0551)87-9838 (팩스겸용)

장재완·양영진 추모사업회 609-735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내
부산대 총학 051)510-1926

정경식 추모사업회 대우중공업 창원
조창규 사무국장 0551)80-6001, F: 62-4914

정운갑 추모사업회 641-370 창원시 신촌동 66번지
삼미특수강노조 방석부 부위원장 0551-68-4072, F: 64-1225

정행구 추모모임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3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정승일 051)510-1418

조수원 추모사업회 609-340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77-2 29통 1반 3층
황철이 051)516-0165, F: 518-5573

진성일 추모사업회 608-736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 경성대학교 제1학생회관 309호
경성대 민주동문회 051)620-4691, 천: YG0720

● 대구·경북지구 ●

김수경 추모사업회 대구시 남구 대명7동 1891-2 4층 053)626-9168/622-3835

김영균 추모사업회 경북 안동시 용삼동 1612-2 청림기공도장 내
안호덕, 임은중 571)821-3154, 015-700-1293

박동학 추모사업회 704-350 대구시 달서구 본동 대구공전 총동아리연합회내
최재용 053)650-3759

박미경 추모사업회 705-032 대구시 대명2동 1799-5 거봉빌딩 3층
전교조대구지부 053)431-0362, F: 053)625-6409

배주영 추모사업회 757-800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45-8
김창환 0584)654-2972

손석용 추모사업회 703-063 대구시 서구 내당3동 888-3 4층 광무검도관
김종구 회장, 김종우 사무국장 015-731-1873, 012-717-5054
4·9열사 대경연합 자통 053)555-0411

● 제주지구 ●

양용찬 추모사업회 690-031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580-31 진광고기획
김택진 064)22-0419, F: 53-0518

● 강원지구 ●

김성수 추모사업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2-13 42/3 전교조지부
0391)41-4265 F0391)41-6574
김용갑 추모사업회 217-070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244 동우전문대 총학생회
(0392-32-6551/3 이상구)
성완희 추모사업회 강원도 태백시 황지 1동 74-77
김창완 0398)592-4433 0433)43-3700, 3681/2

● 관련단체 ●

가톨릭노동사목 100-391 중구 장충동 1가 37-3
02)279-2302, F: 269-1567
노래극단 희망새 611-07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46-2 7/2 지하
(051-505-6943팩스겸용)
대우조선노동조합 655-610 경남 장승포시 장승포우체국 사서함6호
(양현모기획실장 0558-681-7944/F682-2000 천JOOYS)
민가협 권오현 의장 02)763-2606, F:745-5604
문예일꾼동우회 130-110 동대문구 신설동 114-89 삼우빌딩 C동 406호
(234-3903/F235-8374)
민족연회국패 mampan 131-203 중랑구 면목 3동 436-41
(436-0464/F469-2319)
민족문학작가회의 121-010 마포구 아현동612-5
총무부장 02)313-1486, F: 392-1838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36-034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02)921-4090, F: 921-4094
부산철거민연합 614-031 부산시 진구 부전1동 347-1 한성빌딩 201호
김중선 0551)808-8960

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사무국장 02)867-0516
서울택시노동자협의회 110-542 종로구 창신2동 131-106 지하
민주택시연맹 수석부위원장 02)299-3200, F: 281-2100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박인도 부위원장 0346)63-3645, F: 0346)554-03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50-046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15 대영빌딩3층
02)675-6181, F: 675-6184
전교조부산지부 614-053 부산시 진구 양정3동 394-3 2/5
051)861-8186, 천: JANGSAM
전국건설일용노동자 138-170 영등포구 신길4동 214-15 2층 (848-9100/F834-0994)
전국농민회총연맹 137-130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사무국장 02)529-6347, F: 529-6348
전국노점상연합 02)725-5025, F: 725-40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6-041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 4층
02)765-2010, F: 765-201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37-130 서초구 양재동 305 천혜빌딩 403호
사무국장 02)529-6349, F: 529-6332
전국철거민연합 110-550 종로구 승인동 56-38 동원빌딩403호
조직국장 02)766-5564, F: 766-5565
전해투 02)744-7437, F: 766-5895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136-031 성북구 동소문1가 42번지 정화빌딩 402호
(762-8201, F764-4634)
통일중공업노동조합 641-020 경남 창원시 외동 853-3 (조호영 0551-87-9838 팩스겸용)
현대중공업노동조합 682-060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노동조합내
(장종진 0522-30-5091/F33-8221)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10-320 종로구 낙원동 59-5 신한빌딩 3층
(743-5872/F743-6618)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152-059 구로구 구로본동 496-43 1층
이철순 회장 02) 867-1347, F: 837-1407
한국통신노동조합 110-777 종로구 세종로 100 한국통신노동조합
사무국장 02)750-5417
홍사단청년아카데미 110-510 종로구 동승로 1-28 도산회관 5층 (745-8171/F747-7686)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주소록

● 수도권 지회 ●

- 강민조(강경대) 500-080 광주시 북구 우산동 162-2 경민회관 062)267-1700, 1710
 권채봉(김의기)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 1단지 주공아파트 82동 105호 412-0775
 김근순(박래전) 445-880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2리 706-4 0339)57-2660
 김순욱(최 동) 133-080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98 금호현대아파트 105-703호 294-6204
 김재원(이재문) 122-042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330-16 아트빌라 202호 389-5816
 김재훈(김세진) 411-270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달빛마을 신한아파트 308동1203호
 0344)64-7212
 김종분(김귀정) 130-08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1동 163-122호 965-1988
 김혜수(강민호) 153-011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한신아파트 11동 1602호 896-6973
 박광숙(김남주) 411-320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부영아파트 701동 602호
 박문숙(김병곤) 431-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관악타운현대아파트 127-301
 0343)85-3759
 박용길(문익환) 142-072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527-30 902-1623
 박정기(박종철) 121-090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진주아파트 3동 912호 719-9642
 박창호(박영진) 152-019 서울시 구로구 독산본동 978-18 866-5706
 반귀분(유재관) 157-240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8-69 5통1반 664-5862
 배외남(김치철) 140-113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124-1 716-0524
 서화자(최응현) 143-224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103-4 2층 444-6236
 송한영(송광영) 136-042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414-24 742-8637
 심용학(심광보) 383-860 충북 주원군 양성면 영죽리 음촌 295 0441)851-4765
 이소선(전태일) 132-032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삼익세라믹아파트 112-1106 993-4505
 이영자(신향식) 150-09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2 문래공원 한신아파트
 2동605호 671-4738
 이용환(이경환) 132-011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582-1954-8158
 이호봉(이범영) 411-350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743번지 한양아파트 403동1902호
 0344)903-0128
 전병임(박현민) 421-02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219-15 201호 032)349-3331
 정영자(신장호) 461-15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877 15통4반 0342)47-9925
 정정원(김윤기) 132-108 서울시 도봉구 미아8동 321-24호 981-3457
 조인식(박종만) 150-04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109번지 25통1반 3층 632-8597

- 차옥란(김상욱) 487-820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02)935-5148 큰누님댁
 허두축(김종태) 462-12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2994-23호 0342)41-6356
 황규남(이재식) 220-120 강원도 원주시 태장1동 758번지 6통1반 0371)732-2286

● 호남지회 ●

- 강종학(강상철) 536-850 전남 해남군 산이면 반송리 696번지 0634)32-4605
 고순임(최덕수) 580-060 전북 정주시 시기동 610번지 5통1반 0681)33-2713
 기세문(기 혁) 500-150 광주시 북구 매곡동 200-3 062)571-0100
 김상배(김종수) 597-830 전북 장수군 건암면 국포리 0656)353-1947
 김종국(김철수) 546-800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노산부락 0694)52-4603
 박금순(김종하) 595-820 전북 순창군 동대면 현도리 696번지 0674)52-4262
 박심배(박승희) 530-400 전남 목포시 석현동 532-2 현대아파트 102동 907호
 0631)76-5763
 박행순(박관현) 501-152 광주시 북구 각화동 금호아파트 8동 1302호 062)261-6502
 배은심(이한열) 501-152 광주시 동구 지산2동 317-1 1통 1반 062)232-2995
 오영자(박선영) 502-210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시장아파트 B동 202호 062)365-1668
 전계순(이재호) 500-220 광주시 북구 용두동 466 9통 4반 062)571-0889
 정해남(정상순) 546-860 전남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 251 0694)53-6192
 조찬배(조성만) 560-180 전북 전주시 금암동 545-145 0652)252-4570
 최성녀(이정순) 540-320 순천시 조례동 조례아파트 5단지 502동 612호 0661)721-4306
 표재근(표정두) 506-040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71-1 하남주공아파트 106동 714호
 062)953-1369
 홍병희(홍기일) 502-220 광주시 서구 양동 369-1 062)363-4666

● 영남지회 ●

- 박형림(박태영) 650-090 경남 통영시 서호동 163-97 현대한복 0557)645-7370
 배수자(서도원) 706-220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141-5 은세계아파트 101동 310호
 053)792-1338
 석옥분(석광수) 704-140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000-133번지 053)585-5908
 신동숙(도예종) 703-064 대구시 서구 내당4동 삼익유타운 106동 210호 053)554-0630
 여상현(여정남) 704-370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우방아파트 202동 1206호 053)637-9026
 이영교(하재완) 701-250 대구시 동구 용계동 백자아파트 5동 506호 053)985-7629
 장용환(장재완) 607-062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1391-4 36통 1반 051)552-2916
 정점매(전재권) 703-064 대구시 서구 내당4동 광장사원 202동 607호 053)567-0793

미 상(이상모) 641-100 경남 창원시 대방동 대방지구 51블럭 13롯데 팽현만씨택 2층
0551)62-0653

하태연(박판수) 부산 경남지구 합동추모사업회 051)806-1558

조동제(조정식) 706-034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1011-15 053)755-8635

최점림(박삼훈) 656-800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53-2 수원아파트 나동 306호
0558)636-2765

미 상(정운갑) 660-230 경남 진주시 평안동 190번지 4층 진주 스트어디스
0591-43-7868

미 상(임중호) 678-960 경남 합천군 삼가면 하판리 588번지 0599)32-5341

● 의문사 지회 ●

김상모(김상원) 156-011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564-43 02)886-1035

김을선(정경식) 631-810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46번지 0551)71-2846

김종욱(김성수) 213-820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언별2리 4반 0391)645-7237

박영옥(이태춘) 614-024 부산시 진구 범천4동 30통 4반 신동씨택 2층 051)635-1803

박재원(박필호) 614-013 부산시 진구 가야3동 445-27 2/4 051)895-1324

신정학(신호수) 133-050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7-58번지 02)295-2434

오순례(문승필) 461-191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717-3번지 대지빌라 302호
0342)754-8502

우정학(박상구) 767-830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4리 450번지 동해안기도원
0565)787-1190

이두형(이승삼) 616-130 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1단지 105동 401호
051)361-1455

이정진(이철규) 500-150 광주시 북구 운암1동 780-74호 062)521-2830

임분이(정연관) 795-845 경북 영일군 대송면 제내1동 589-11 0562)85-3571

정진동(정법영) 360-280 청주시 사창동 248-4번지 청주도시산업선교회 0431)271-6412

최봉규(최우혁) 152-051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642-46 우방주택 2동 804호 02)866-8324

한상훈(한희철) 462-150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공아파트 203동 401호 0342)47-0767

허영춘(허원근) 539-820 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433-33호 0632)544-1082

황기익(박창수) 462-241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금광삼익2차아파트 110-901호
0342)49-7176

이계남(우종원)

● 준회원 ●

고금숙(박종근) 780-090 경북 경주시 사정동 14-8 4통 3반 0561)42-4751

김현주(김원기)

남종현(남태현) 336-070 충남 온양시 방축1동 28번지 0418)2-3038

라화순(고정희)

문덕수(문영수) 206-880 강원도 춘성군 동래면 학곡2리 4반 336-7호 0631)52-9440

박명선(김용권) 137-073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254-141 02)914-7435

박영애(권미경) 602-062 부산시 서구 아미2동 산19번지 13통 6반 051)255-4829

송명규(송철순) 410-074 인천시 동구 송림4동 31번지 7통 6반

양해만(양영진)

우종례(김길호)

윤길순(김진수) 430-018 안양시 안양8동 599-8 0343)66-7838

이내석(이내창) 151-051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728-23 02)878-9435

미 상(이이동)

최영자(김경숙) 501-220 광주시 동구 소태동 712-6 2통 4반 062)222-6319

황보문수(황보영국) 616-102 부산시 사하구 괴정4동 오성빌라 라동 403호 051)336-3841

● 11기 가입신청 가족 ●

곽영일(곽현정) 142-102 서울시 강북구 미아2동 791-444 성지교회 02)985-0091

권오석(권희정) 152-091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452-5 02)685-6745

이기주(이덕인) 402-041 인천시 남구 학익1동 318-34호 10/6 032)864-3647

이본수(이경동) 556-890 전남 여천군 울촌면 삼산리 190번지 0662)686-0629

장남수(장현구) 138-171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85번지 15호 02)420-0686

이정수(이석규) 590-890 전북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상리부락 183-1

5. 1. 가슴 부딪친 화요일 -

오랜 세월 애타게 간망 해오던 그런 사람
 등이 여기 있었다
 바로 이곳 "광장" 에
 그들과 언제까지나 함께하리 냐라
 우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싸우라 싸우라 피려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싸우리 냐라
 그대 질남아라! 너네들이 아무리 밝고
 여압해도 우리 더욱더 강하게 라시이어
 날테니까.
 어둠과 캄캄한 밤이 지날 나면
 새날이 밝아 오듯이 언젠가는 우리 노동자의
 세상이 인리라는 강한 믿음과 더불어
 싸우려라

기사

No.

이땅의 백성들이 자선들의 최소생활 유지를
 위한 몸짓마저 쫓 빼앗긴채 굶어가고 있다.
 이 한탄도에는 민족자본에 의해 더이상 자본경제가
 반 물인 것이 없어져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도 민중
 의 아픔을. 나의 투쟁적인 역할을 연기하려고, 무관심한
 나의 안면이 역겹다. 정정 안장들 그 의미도 갓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하리 끼여하는 나의 모습은,
 더이상 지켜보고 싶지않아서 가슴 못난것들 태하고
 만다.
 갈 수밖에는 없는 나약함에 싸우려 하면서.

부모님 편상서

어느덧 아침이 하얗고 눈이 비처럼 서걱 하는군요

그런 안녕 하셨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염려대로 열심히 훈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염려는 조금도 다지고 집에 아무일 없게

편안 하길 기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있는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 하심이 아니겠는지요

우리 집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남보다 더지킬 양은 그런 마음이 지킬 일이지

나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건강을 생각 하시시라도 술과 담배를 조금씩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도 건강 생각 하시며 마음편히 쉬시오

상식 상상이 보아라

별리서 나와 너희들에게 편을 들수 있게 말이나 기쁘지보르네

그래 너희들은 학생이나 학생의 임무는 공부 하는것이

아니겠느냐 들다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더하여 남에게

뒤지지 양기를 바랄뿐더러 비가 늦기 나날때는

들다 / 그 등 헛기를 바란다

일흔구백팔십오년 삼이월 십오일

군에서 들씨 아들 드림

훈련병 박 상구

유 서

학우들이여, 이제는 봄시다.

우리와 같은 학우들이 쇠파이프에 맞아 죽고

꽃다운 청춘을 불사르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노태우 정권과 독점자본가들이 1천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 형제들을 착취·수탈하고, 저항이 있는곳마

다 광폭한 탄압을 휘두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떨쳐 일어나십시오. 슬픔과 분노를 그 지체로

끝낼것이 아니라, 현 정치권력에 맞서 정면

투쟁, 정면 돌파해 나가십시오.

많은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제 욕까지 여러분이 투쟁하여 준다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민중의 힘으로, 민중의 손으로 노태우 살인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는 날

까지 힘차게 투쟁하십시오.

5/3, 천세용
재빨리빨리 독재분양, 민중에게 물고등 노태우정권타도!

제가 못 다 깎아라...
이리나니 수양은 재변함으로...
가야드라...

어머님. 인제는 이 나이 경치가 없으
어머님께 안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결은 부디 몸건강하시라

너희 사랑이요.

어차피 제가 살아서 어머님께
있더라도 제가 가질 순개라. 명하리
어머님이 마땅히 저 언저리 명하리

안고요. 한대 명하리. 한대 명하리
안고요. 어머님께 안씀은 드리지
가야드라. 가야드라. 가야드라

어머님, 언저리. 가야드라.

동년월일 4년 시월 10 일

부친상. 부친상. 부친상.

사망

어머님.
사실이지. 내 이리 힘드니까
이 세상이 사남을 힘있게 만드니까. 못하게 만드니까.
살아 보려고 밤이두지는 사남... 힘드니까. 살아야 하는 사남은
못 살게끔 하고 만다.

이런 생각이 저에겐 살아야 하는 사남의 아픔이
이 사리가. 생각하게 사남에게 살아 보려고 밤이
하는 나에게는 여지 없이 찾아 내는
학하리. 재학하게 살아 보려는 사남은 악하리. 부도하리
만드니까 만다

그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것. 잘못들이 가는 것을 잘못 됐다고 나쁘다고
만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 강박관념. 살아 보려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가장 잘 보려고 한 평생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는 아버님께
부끄럽다고 부끄럽습니다.

어머님. 옛날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입니다. 인간다운 삶의 맛이 나는 세상이고
관심과 뜻과 돈이 있고 고기가 부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사나. 같이 어그러져 사나. 세상
살아나. 인간다운 삶은 살아야 하는 나. 그러니까 관습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그러나 후회도 없습니다.

너럼과 비슷한 세상에 새것은 고. 만듭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능은은 재학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고. 관습. 못한 것을
드려주세요. 영 일 드림.

들리지 않느냐, 우리의 삶이
 너의 손짓이 보이지 않느냐.
 권위받지 응징받지 우리의 모가지.
 삶의 죽어 죽어 생명이 다했나
 외발양에 숨어들어간 벼랑 끝의 구명
 그래도, 슬픔은 눈물만이 아닐까,
 그래도, 아픔은 비명만이 아닐까,
 왜, 우리는 모두
 활자처럼 겁을 먹은 자라못이 되었나.
 왜 우리는 정액 히스테리를 치우치지 못하나.
 아편, 무덤이다.
 웃어주면 그들의 발사대가 아니라.
 꼭대기 너의 입과
 수감처인 수감자
 뚝뚝 떨어지는 우리의 발아닥.
 소니카는 함성으로 우리는 가슴뿐이었던
 왜 이런 양면이 그냥 있어야 했나.
 왜 이런...

1986. 11. 29.

- 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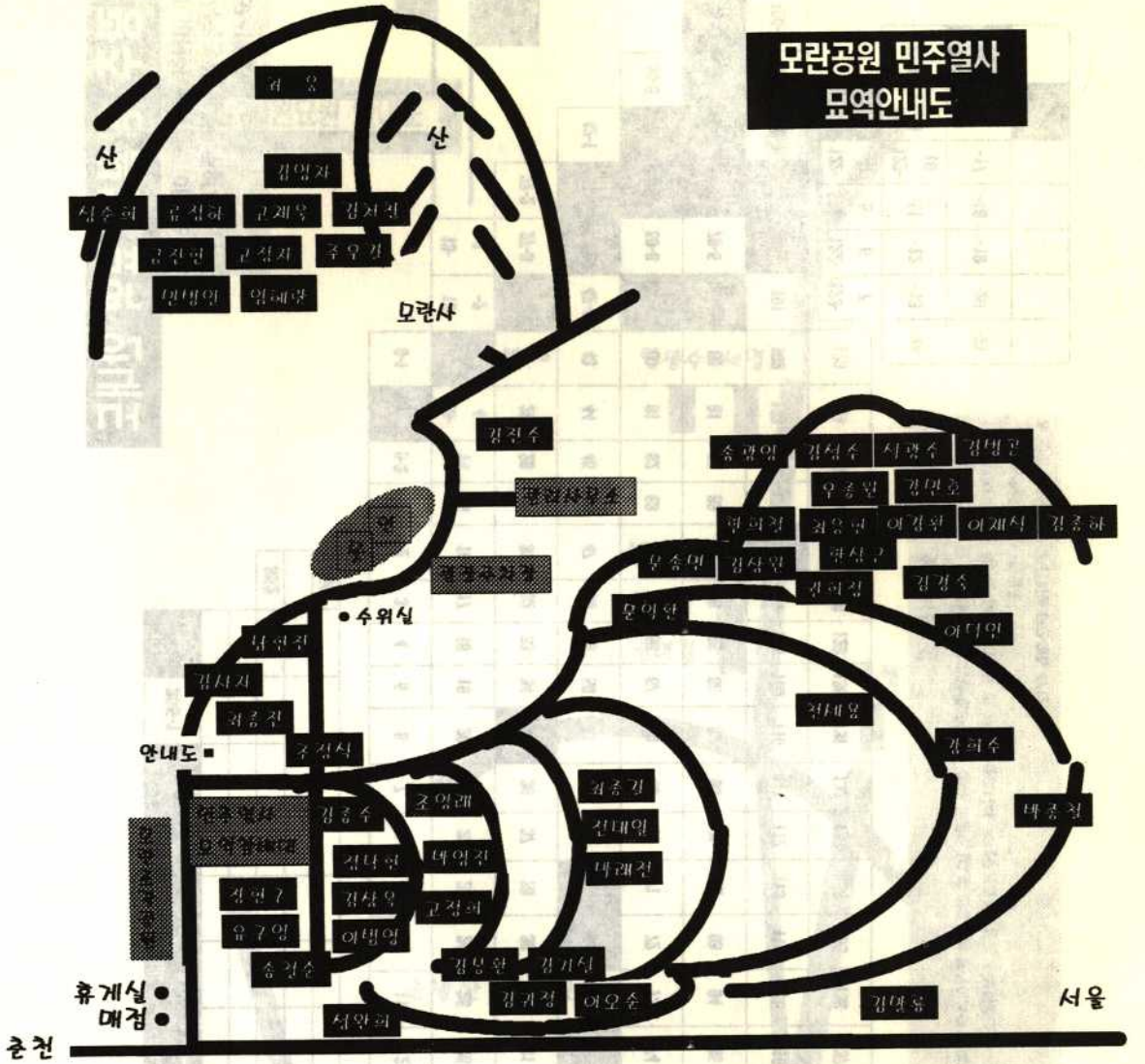
부끄러워
 모든 자취를 위해 당신들의 귀색은
 너무나 자취를 잃어왔습니다.
 당신들의 의대한 투쟁으로 저 또한 모든
 자취를 잃어왔습니다.
 부끄러워
 너무나 존경스러우신 분들에게 나의 자취
 편지로서 그 존경심을 다하겠습니다.
 부끄러워 희생으로 저의 자취 사명을 다하고
 각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 이 자취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혁명이 너무나 슬프고 위대한
 것이기에 부끄러워 용서하신 이 생명을
 아깝게 합니다.
 부끄러워 슬픔은 생애와 함께 가는 이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찢어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
 전 다짐해 들어가면서 왜 우리들의 부끄러움도
 저쪽을 그들을 지켜야 했는가를 알게 되었는지
 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종반은 약한
 현주와 강대국들이 있었으므로 해서 그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변종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미래와
 파괴될까 두려워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하지 않는 실례여. 전국의 우리 동지들의
 거대한 투쟁에 의해 흔들린 세계와 세계
 여간 추악한 피를 뺏으면서 쓰러질 것입니다.
 부끄러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취가 왜 죽어야 했는가를

편 "전통에 능숙하면 완성한다"나 "전반적으로 못가야"나 "선은 다르다"

편 "전통에 능숙하면 완성한다"나 "전반적으로 못가야"나 "선은 다르다"

10대 이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전통에 대한 부분이 빠르며, 문화에 대한 부분은 위배 안 된다. 전통에 대한 부분은 특히 빠르며, 문화에 대한 부분은 위배 안 된다.

"전통에 능숙하면 완성한다"나 "전반적으로 못가야"나 "선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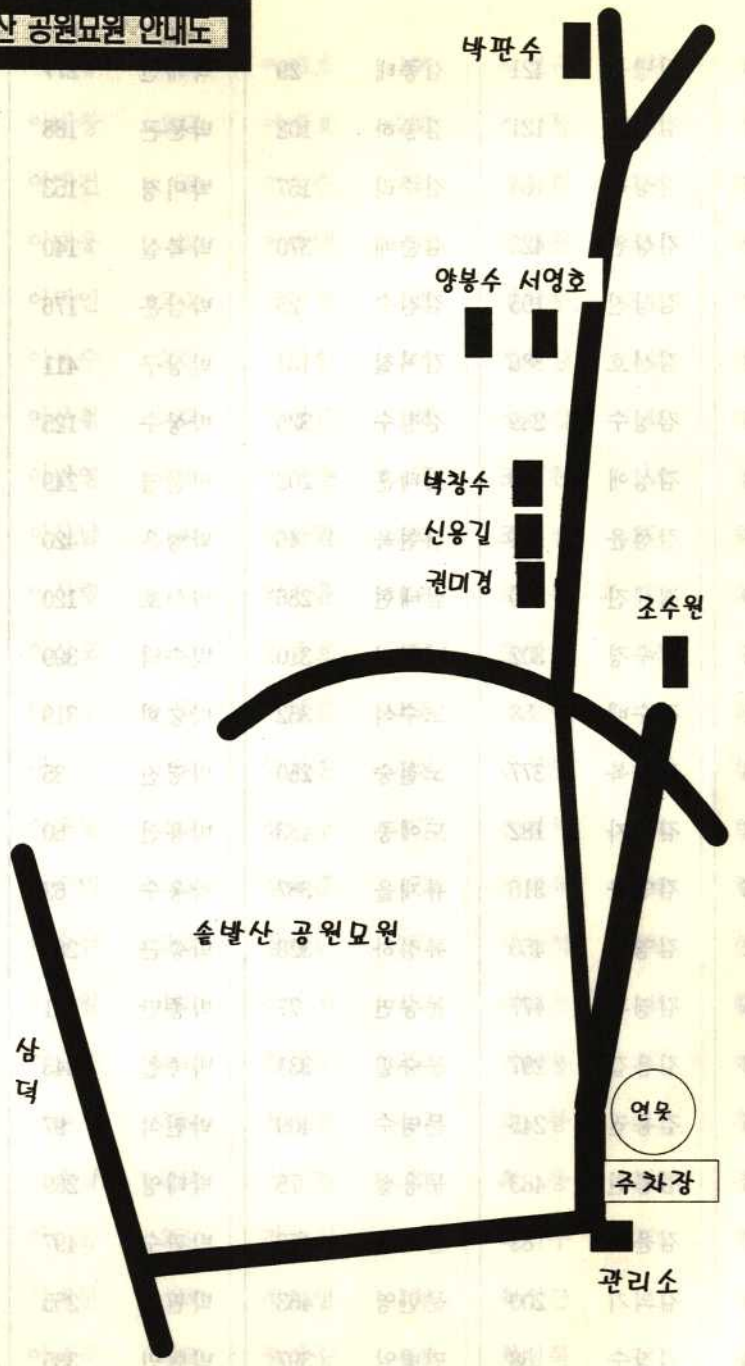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청량리 시장이나 청량리역에서 33번이나 47번 버스를 타고 마석사내에 도착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셋터가는 버스를 타면 모란공원을 지나간다. 또는 좌석 133번을 타면 모란공원 바로 앞에 하차한다. 셋터에서 마석이나 서울로 나오는 버스를 타고 모란공원을 거쳐간다. 거처의 경우엔 청량리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마석역에서 하차한다.

*시간은 버스시간입니다

청량리 — 마석 — 모란공원 — 셋터
 1시간 — 5분 — 5분

부산 솔밭산 공원묘원 안내도



■ 찾아가는 길 문의: 부산경남지구 합동추모사업회 051-806-1558

관주 망월동 묘역 안내도

5.18관련 열사들의 이점으로
시국관련 민족민주열사들의
묘지였습니다.

5.18 연대자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3-100	13-101	13-102	13-103	13-104	13-105	13-106	13-107	13-108	13-109	13-110	13-111	13-112	13-113	13-114	13-115	13-116	13-117	13-118	13-119	13-120	13-121	13-122	13-123	13-124	13-125	13-126	13-127	13-128	13-129	13-130	13-131	13-132	13-133	13-134	13-135	13-136	13-137	13-138	13-139	13-140	13-141	13-142	13-143	13-144	13-145	13-146	13-147	13-148	13-149	13-150	13-151	13-152	13-153	13-154	13-155	13-156	13-157	13-158	13-159	13-160	13-161	13-162	13-163	13-164	13-165	13-166	13-167	13-168	13-169	13-170	13-171	13-172	13-173	13-174	13-175	13-176	13-177	13-178	13-179	13-180	13-181	13-182	13-183	13-184	13-185	13-186	13-187	13-188	13-189	13-190	13-191	13-192	13-193	13-194	13-195	13-196	13-197	13-198	13-199	13-200	13-201	13-202	13-203	13-204	13-205	13-206	13-207	13-208	13-209	13-210	13-211	13-212	13-213	13-214	13-215	13-216	13-217	13-218	13-219	13-220	13-221	13-222	13-223	13-224	13-225	13-226	13-227	13-228	13-229	13-230	13-231	13-232	13-233	13-234	13-235	13-236	13-237	13-238	13-239	13-240	13-241	13-242	13-243	13-244	13-245	13-246	13-247	13-248	13-249	13-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2-10	122-11	122-12	122-13	122-14
김남주	4	5	6	7	김종태	-16	-17	-18	-19	-20	-21
노수석											

망월동 가는 길

1. 4차선 차를 타고 관 주 회 회로로 가다 도로변에 고가도로로 올라가 동행주 도로로 진입하여 황제마을을 지나면서 좌회전(망월동)한다 후 도로변에 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
 2. 관 주 회 회에서 좌 회 회 시내버스 25-2번을 타고 노선행합니다. 시내버스에서 유정마을 출정마을소방-계정마을 일-정고말-서방마을-유정마을(시내버스)까지 내려와 좌 회 회-관 주 회 회로 가다.
 3. 망월동 관 주 회 회소 입구는 052-285-4712

찾아보기 1

강경대 313	김병구 421	김종태 29	박래전 277	박혜정 234
강민호 110	김봉환 121	김중하 102	박문곤 188	배주영 107
강상철 466	김상옥 164	김주리 157	박미경 153	배중손 83
강현중 102	김상원 423	김준배 370	박복실 140	변형진 37
고재욱 327	김상진 195	김진수 25	박삼훈 176	서도원 484
고정자 152	김선호 386	김처칠 134	박상구 411	서영호 155
고정희 469	김성수 239	김철수 325	박상수 125	서전근 178
곽현정 273	김성애 60	김태훈 202	박선영 249	석광수 130
권미경 136	김성윤 161	김현옥 46	박성은 420	성순희 448
권양섭 499	김세진 230	남태현 286	박성호 120	성완희 79
권희정 355	김수경 302	남현진 310	박순덕 399	손구용 377
기혁 221	김수배 58	노수석 352	박승희 319	손석용 329
기종도 438	김순복 377	노철승 250	박영진 35	송광영 228
김경숙 26	김시자 182	도예중 483	박용선 50	송상진 485
김광길 496	김영균 316	류재을 367	박용수 62	송종호 312
김귀정 322	김영자 450	류정하 328	박종근 280	송철순 80
김기설 475	김영환 477	문송면 77	박종만 31	신건수 347
김기훈 308	김용갑 297	문송필 331	박종철 243	신연숙 395
김길호 376	김용권 245	문영수 409	박진석 97	신용길 123
김낙성 168	김용원 483	문용섭 75	박태영 269	신장호 299
김남주 407	김윤기 85	문익환 453	박판수 497	신향식 495
김두황 208	김의기 200	문한영 463	박필호 255	신호수 39
김말룡 464	김장수 68	민병일 397	박현민 335	심광보 305
김병곤 473	김중수 88	박동학 361	박현채 461	양봉수 173

양영진 283	이광웅 145	이재호 105	정성규 471	최성조 101
양용찬 479	이내창 293	이재호 230	정성묵 301	최완용 84
양재영 496	이대건 63	이정순 425	정성희 205	최우혁 266
여정남 486	이대용 48	이종대 99	정영관 417	최윤범 71
오범근 70	이덕인 391	이진희 129	정영부 149	최은순 213
오영권 359	이동수 233	이창환 346	정영상 148	최용현 309
오영철 187	이문철 82	이철규 288	정운갑 146	최정환 389
오원석 141	이범영 458	이태춘 415	조경천 150	최종길 430
오원진 446	이상남 90	이한열 263	조성만 274	최종철 203
오원택 349	이상렬 333	임기윤 436	조수원 179	최태욱 116
오한섭 375	이상모 95	임종호 171	조영래 403	표정두 42
우인수 279	이석구 57	임혜란 158	조정식 92	하재완 485
우종원 225	이석규 54	임희진 138	진성일 241	한상근 364
우홍선 486	이수병 484	장석구 487	진철원 354	한상용 342
원태조 120	이순덕 41	장용훈 73	진태윤 500	한영현 210
유구영 185	이승삼 251	장재완 257	채광석 401	한희철 216
유병진 271	이영일 113	장준하 432	채희돈 147	함석헌 440
유인식 52	이오순 456	장현구 350	천세용 317	허원근 218
유재관 132	이원기 384	전재권 487	최 동 117	홍기일 33
유진근 488	이윤성 207	전태일 21	최 용 159	홍장길 190
윤용하 128	이이동 259	정경식 65	최덕수 275	황보영국 44
윤재영 338	이재문 493	정법영 198	최성근 142	황인철 405
이경동 340	이재식 382	정상순 428	최성묵 167	황정하 214
이경환 236	이재용 262	정상울 380	최성묵 443	황혜인 357

편집후기 1

한 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자료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을 내어야 한다는 고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발간된 열사.희생자 자료집이 91년도까지 산화하신 분들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나마도 이제는 그 자료집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대회의는 '열사회보'에 다달이 나가는 '이 달의 열사.희생자'란이 한 바퀴 도는 내년에 발간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자료집 발간을 이렇게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박정기 아버님을 비롯한 유가족 부모님들의 지극하신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기꺼이 맡아 해준 박래전 기념사업회 동지들과 송실대 학우들의 애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대회의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 발간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 최 현대사인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이 달의 열사'를 준비할 때도 열사들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를 찾아 수십 번씩의 전화를 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정 사진도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자료가 몇 줄 되지 않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 동료들이 당시에만 관심을 두고 장례 이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며 저희 연대회의가 자료를 잘 챙기지 못하고 추모사업회들이 활성화 되도록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에 대한 대 사회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데 따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 발간을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을 출간의 의의는 전태일 동지부터 김준배 동지까지 한 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총 망라된 자료집이 묶여 나왔다는 점이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와 이후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를 발굴하여 보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그리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호칭을 '열사', '의문사', '사고사'를 모두 '동지'로 통일하고 부문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몇 번에 걸친 교정을 했음에도 여전히 여러 면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모든 책임은 연대회의 기획국장에게 있음을 밝혀 둡니다.

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을 자식들이 이루고자 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님, 아버님들과 사회 각 부문에서 열사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모든 동지들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에 수록된 김준배 동지를 끝으로 하여 더 이상 열사들이 산화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모든 사업을 뒤로 미룬 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 편집 작업을 하느라 애써 주신 박래전 기념사업회 동지들과 송실대 학우들을 열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흔쾌히 정성을 다해 맡아 주신 개마서원 동지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 열사정신의 정수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

1997. 11월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기획국장 김학철

편집후기 2

어느덧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작할때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었고 많은 어려움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은 자료집에 대한 애착과 함께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자료집을 마치면서 일꾼들, 유가족 부모님들 및 관심을 쏟아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애초 약속한 날짜에 자료집이 나오지 못한 것이 첫 번째고, 준비의 부족과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하여 자료의 취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일들이 시작하고 1개월 동안, 우리 기념사업회의 전화와 팩스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하나의 내용이라도 빠지지 않게 하려는 부모님들과 각 단위 일꾼들의 애정에 바쁘고,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자료집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 그리고 관심속에서 자료가 하나둘씩 도착할 때는 그 어느때보다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면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자료가 너무나 부족했던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내용들을 찾고 자료를 모아내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열사들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고, 계속되는 투쟁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하지만 열사들의 그러한 숭고한 투쟁을, 정신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쟁의 현장에서 항상 열사정신 계승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어떠한 열사들이 있었고 어떻게 산화해 가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열사들에 대해 알리고 사업을 진행해보자는 생각또한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의 각 기념사업회(추모사업회)의 어려움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집이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열사를, 열사정신을 알려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무더운 여름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짜증 한번,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일을 도와준 재학생 및 졸업생들, 그리고 후원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같이 힘써준 유가족협의회와 연대회의 여러분, 내 일 같이 자료집 편집에 참여해 주신 개마서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집이 좋은 교훈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열사들이 알려지고 이후 좀더 좋은 자료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송실대학교 박래전 기념사업회 사무국 일동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소개자료집
살아서만나리라

1998년 11월 20일 발행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화764-2835,전송743-2835)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전화742-3180,전송742-3181)